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비정형 이론에 따른 바디아트 표현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이 연 화

비정형 이론에 따른 바디아트 표현 연구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이 연 화

# 인 준 서

이연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 사회는 급속한 과학 기술과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예술, 문화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문화,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비정형’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모더니즘적 관념론에서 이탈하고 다채롭고 의외성이 짙은 새로운 양상으로 표현되는 비정형의 개념을 바탕으로 건축에 나타난 비정형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의 결과로 비정형의 조형적 특성을 비선형성, 역동성, 이질성의 요인으로 범주화 하여 구분할 수 있었으며 바디아트 작품 제작의 특성으로 삼았다.

이에 비정형의 조형적 특성을 왜곡, 변형, 중첩, 반복, 율동, 소재, 색채로 세분화하여 페인팅 기법, 에어 브러쉬 기법, 오브제 기법으로 상반신 바디 페인팅 2점, 전신 바디 페인팅 4점, 총 6점의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은 이토토타의 건축물인 도쿄 오모테산도 토즈 빌딩 주변에 있는 가로수의 나뭇가지 모양이 외벽에 디자인된 것을 모티브로 하여 비선형성에서 느껴지는 왜곡과 변형을 시각화하여 디자인 하였다.

작품 II는 한옥의 창과 창문에 있는 순수 기하학적 문양들을 모티브로 하여 이를 로마자와 상형문자에서 오는 기하학 문양으로 응용하였으며 이를 서로 중첩시켜 거듭 포개어지고 겹쳐지도록 하여 작품을 제작 하였다.

작품 III은 미국 보스턴에 ‘Banq’ 라는 레스토랑의 실내 디자인의 비선형적 유기적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율동적이고 자유로운 곡선이 불규칙하게 반복되지만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어 가는 효과를 부각시켜 시각적 착시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작품 IV는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을 모티브로 하여 반복적인 울동감과 리듬감을 형성하고 동일한 형태나 색, 질감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매끈한 선이 아닌 파동하는 곡선, 휘어지고 감기는 듯한 곡선을 반복하여 역동감을 강조하여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V는 플로리다에 있는 건축물인 살바도르 달리 뮤지엄(Salvador Dali Museum)의 실내 디자인에서 보여 지는 울동감을 모티브로 하여 연속된 형태의 반복과 흐름, 변환, 대칭의 요소들을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쾌함을 주어 울동감이 부각되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VI은 현대 건축물의 외피에서 오는 다양한 이질적 소재를 모티브로 하여 신체에 이질적인 소재를 결합하고 과도한 색채로 인하여 이질감을 극대화시켜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정형의 특성을 바디아트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디자인적 형태와 요소들이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인 재현까지 가능한 디자인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방향에서의 창의적인 시도에 활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                           |           |
|---------------------------|-----------|
| <b>I. 서 론</b> .....       | <b>1</b>  |
| <b>II. 이론적 배경</b> .....   | <b>3</b>  |
| 1. 비정형 이론의 고찰 .....       | 3         |
| 1) 비정형 이론의 개념 .....       | 3         |
| 2) 건축에 나타난 비정형 .....      | 5         |
| 2. 비정형론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 | 9         |
| 1) 비선형성 .....             | 9         |
| 2) 역동성 .....              | 15        |
| 3) 이질성 .....              | 21        |
| 3. 바디아트의 이론적 고찰 .....     | 26        |
| 1) 바디아트의 개념 .....         | 26        |
| 2) 바디아트의 표현 기법 .....      | 27        |
| <b>III. 작품제작</b> .....    | <b>34</b> |
| 1. 제작 의도 및 방법 .....       | 34        |
| 2. 작품제작 .....             | 37        |
| <b>IV. 결 론</b> .....      | <b>66</b> |

## 참 고 문 헌

## ABSTRACT

## 목 차

|  |    |
|--|----|
|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비정형의 조형적 표현 특성 .....   | 8  |
| <표 2> 비정형론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           | 24 |
| <표 3> 비정형론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작품 디자인 계획 ..... | 36 |
| <표 4>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               | 39 |
| <표 5> 작품 II 디자인 이미지 .....              | 43 |
| <표 6> 작품 III 디자인 이미지 .....             | 48 |
| <표 7> 작품 IV 디자인 이미지 .....              | 53 |
| <표 8>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               | 58 |
| <표 9> 작품 VI 디자인 이미지 .....              | 63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해안선의 비선형 .....                             | 13 |
| <그림 2> 「Banq」, 왜곡 .....                           | 13 |
| <그림 3>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 왜곡 .....                     | 13 |
| <그림 4> 「Nationale-Nederlanden Building」, 변형 ..... | 13 |
| <그림 5> 「오모테산도 토즈」, 변형 .....                       | 14 |
| <그림 6> 한옥에 표현된 중첩 .....                           | 14 |
| <그림 7> 「Dynamic Tower」, 역동성 .....                 | 19 |
| <그림 8> 「Fish Dance Restaurant」, 역동성 .....         | 19 |
| <그림 9> Zaha-hadid, 반복 .....                       | 19 |
| <그림 10> 중국 웬양 다랑논, 반복 .....                       | 19 |
| <그림 11> 「성장모델」, 울동 .....                          | 20 |
| <그림 12> 「Salvador Dali Museum」, 울동 .....          | 20 |
| <그림 13> 장소의 이질성 .....                             | 25 |
| <그림 14> 건축물 외피 소재의 이질성1 .....                     | 25 |
| <그림 15> 건축물 외피 소재의 이질성2 .....                     | 25 |
| <그림 16> 건축물 외피의 색채 .....                          | 25 |
| <그림 17> 회화적인 표현 기법 .....                          | 32 |
| <그림 18> 액션 페인팅 기법 .....                           | 32 |
| <그림 19> 그래픽 표현 기법 .....                           | 32 |
| <그림 20> 일루미네이션 표현 기법 .....                        | 32 |
| <그림 21> 에어브러쉬 표현 기법 .....                         | 33 |
| <그림 22> UV 발광 표현 기법 .....                         | 33 |
| <그림 23> 오브제를 이용한 표현 기법 .....                      | 33 |

|                         |    |
|-------------------------|----|
| <그림 24> 디지털 표현 기법 ..... | 33 |
| <그림 25> 작품 I .....      | 40 |
| <그림 26> 작품 II .....     | 44 |
| <그림 27> 작품 II-1 .....   | 45 |
| <그림 28> 작품 III .....    | 49 |
| <그림 29> 작품 III-1 .....  | 50 |
| <그림 30> 작품 IV .....     | 54 |
| <그림 31> 작품 IV-1 .....   | 55 |
| <그림 32> 작품 V .....      | 59 |
| <그림 33> 작품 V-1 .....    | 60 |
| <그림 34> 작품 VI .....     | 64 |
| <그림 35> 작품 VI-1 .....   | 65 |

## I. 서론

오늘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예술적, 문화적 환경은 정보의 조합이나 해체, 의미의 불확실성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모더니즘적 관념론에서 이탈하고 다채롭고 의외성이 짙은 새로운 양상으로 표현되고 문화,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비정형’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형은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핵심 개념인 ‘비정형’론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 빈번히 등장하는 훼손되고 왜곡된 불균형의 상태로 모든 범주들을 해체, 분산시켜 비정형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게 한다.

바타이유의 비정형론은 현실을 추상적인 개념들에 따라 재조직하고 작은 의미의 단위들로 분해하면서 형태적 경계들을 파기해 버리고 “의미 없는 비개념”<sup>1)</sup>으로써 모호하고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사유를 거역하는 무엇이라 규정<sup>2)</sup>한다. 이러한 비정형이 디자인에 새로운 형태 언어를 생성시키고 디지털 매체 시대가 갖는 의미체계의 와해와 원본 없는 이미지들은 과거와는 다른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간, 비기하학적인 형태 및 공간, 자연 그대로의 현상을 공간에 창출하여 독창적인 형태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sup>3)</sup>

이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상에 맞물린 비정형은 철학, 문학, 건축, 패션, 미술, 실내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현상으로 출현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시각 예술, 특히 현대 건축물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

1) 엄동철, 오태원(2015), 조르주 바타이유의 비정형 개념을 통한 물의 디지털이미지 정형화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6(1), p. 330.

2) 김원방(2004), 잔혹, 조르주 바타이유, 그리고 디지털 예술,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2, p. 169.

3) 박상준, 홍관선(2013), 비정형 디자인의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1), p. 232.

이에 본 연구는 바타이유의 비정형 이론 및 바디아트의 이미지 표현을 위해 현대의 비정형 건축물에서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여 이를 창의적인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정형의 이론에 따라 신체를 장식하는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현대 건축물의 유기적 구조가 신체와 상통함으로 현대 건축물에 나타난 비정형적 표현 양식을 고찰하여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를 도출하고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비정형은 디지털 매체의 무한 복제성과 무한 증식의 현상에서 오는 자유로운 변형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규칙하고 무정형한 모양들과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비선형성을 기하학적 형태나 시각적 착시효과를 모티브로 삼는다.

연구 방법은 비정형의 이론을 다루는 선행 논문과 바디아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국내·외에서 출판된 단행본, 국내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발표된 선행 연구 자료를 정리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으며, 바디아트 작품 제작을 위해 여성 모델을 대상으로 상반신 바디 페인팅 2점, 전신 바디 페인팅 4점, 총 6점의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정형 형태의 구성 원리들이 창의적인 디자인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재료와 실험적 시도로 조형 예술로서의 바디아트 영역을 확대하고 발전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비정형 이론의 고찰

#### 1) 비정형 이론의 개념

비정형(非定型)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형태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sup>4)</sup>을 의미하는데, 근본적인 무형식을 뜻하는 ‘Formlessness’로부터 파생된 용어이며, 단순히 전통적 규범에 따른 형태를 거부한데에서 출발<sup>5)</sup>하고, 물리적 형태와 형태의 지각에 있어서 기존의 사고 질서를 깨는 관념적 개념을 통틀어 말한다.<sup>6)</sup>

프랑스의 철학자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1897-1962)는 비정형을 모호하고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사유를 거역하는 무엇이라 규정하고, 현실을 추상적 개념들에 따라 재조직하고 작은 의미의 단위들로 분해하는 범주들과 형태적 경계들을 파기해버리는 것이며, 이것을 ‘의미 없는 비개념’이라고 하였다.<sup>7)</sup> 또한 바타이유는 ‘형식’ 혹은 ‘내용’도 아닌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용어가 치환되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의 근원 없는 미끄러짐의 작용에 관심이 있었으며, 특정 주제도 물질도 혹은 개념도 아닌 이러한 “작용(Operation)”을 분변학(糞便學, Scatology), 혹은 이종학(異種學, Heterology)이라고 불렀다.<sup>8)</sup> 바타이유는 이러한 이종학을 특정한 ‘스타일’의 예술을 지

4)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B%B9%84%EC%A0%95%ED%98%95](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B%B9%84%EC%A0%95%ED%98%95), (2016. 2. 15. 검색)

5) 정숙영(2007), 현대회화의 비정형이론과 형상전이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71.

6) 김철규, 김정재(2003), 현대건축의 비정형 건축형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4), p. 102.

7) 김원방(2004), op.cit., p. 169.

8) Yve-Alain Bois, Rosalind E. Krauss, 정연심 외 역(2013), Formless:A User's Guide,

향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술이 최종적으로 미적인 혹은 의미론적 완결체로 구축되는 질서를 무차별적으로 와해시키는 반미학적인 개념인 ‘비정형’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하여 제시했던 것이다.<sup>9)</sup>

또한, 바타이유가 주도했던 잡지인 도큐먼트(Documents)<sup>10)</sup>에는 ‘비평적 사전(Dictionnaire Critique)’이란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글에서는 비정형을 거미나 가래침과 같이 모호하고도 역겨우며 실체가 없는 것<sup>11)</sup>이라 비유하고, ‘- 같은 것’, 또는 ‘- 처럼’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정형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며, 형태가 가리키는 것이 없고, 기존의 형식에 부여되었던 권위의 붕괴<sup>12)</sup>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형은 높은 차원의 의미나 형태적 특징을 가질 수 없는 개념으로, 바타이유가 의도한 것은 개념들이나 형태들을 더욱 초월하는 수준에서 아우르는 개념을 지향함이 아니라, 그 경계들을 위반, 혹은 관통하고 깨뜨림으로써 형태들을 와해시키려는 지향에 있는 것이다.<sup>13)</sup>

이와 같이, 바타이유의 비정형 이론은 모든 관념론적인 것에서 일탈하고, 평면성이나 형태의 변형, 비재현적 단계를 넘어서서 형태와 개념, 모든 의미에서 각각의 새로운 모더니즘(혹은 반-모더니즘)의 구체적인 실현이며, 탈-분류하는 총체인 것<sup>14)</sup>이다.

---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 파주: 미진사, pp. 20~21.

9) 김원방(2005), 후기매체시대와 이종적(異種的) 예술, 한국예술학회, 1(1), p. 40.

10) 도큐먼트(Documents) : 1929년부터 1930년까지 총 15호가 발행되었던 잡지로 조르주 바타이유가 편집장으로 있었다. 피카소, 뒤샹, 미로, 브라크, 자코메티, 에른스트 등 당시의 전위 미술가들에 대한 글과 이미지들뿐 아니라,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문명 이전의 인간 사회와 유물들, 할리우드의 영화까지 지극히 다양한 분야의 글과 사진들로 채워진 잡지였다.

[http://webzine.sejongpac.or.kr/access/ecatalog\\_pt.asp?callmode=&catimage=&Dir=4&um=pt&cpage=58](http://webzine.sejongpac.or.kr/access/ecatalog_pt.asp?callmode=&catimage=&Dir=4&um=pt&cpage=58). (2016.2.26. 검색)

11) 진취연(2010), 바타이유의 비정형(formless):비형상에 대한 현대미술이론의 고찰과 한계, 미술사학보, 34, p. 112.

12) 박은지(2013), 바타이유의 비정형 이론을 통해 본 에드 루샤(Ed Ruscha)의 아티스트 북(Artists' books)연구:1962~1972년 시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9.

13) 김원방(2004), op.cit., p. 169.

14) 엄동철, 오태원(2015), op.cit., p. 334.

## 2) 건축에 나타난 비정형

비정형은 모더니즘이 순수성, 주체를 강조했지만 이것이 해체되면서 형상의 파괴와 이미지 차용, 이미지 재현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개념적으로 비정형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up>15)</sup> 바타이유의 비정형 이론은 본래의 대상과 무관하게 변형된 이미지들이 출현하여 새로운 형상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같은 새로운 형상이 스스로 본질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원본성(originality)을 밝힐 수 없는 이미지들을 출현<sup>16)</sup>하게 하였다. 바타이유가 주목한 이러한 비정형은 형태의 왜곡과 불균형의 상태를 가리키며 이것이 시각화 되어 표현될 때, 모든 범주들을 해체시키는 개념에 해당 한다<sup>17)</sup>.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상에 맞물린 비정형은 철학, 문학, 건축, 패션, 미술, 실내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현상으로 출현하여 전개 되어 왔는데 시각 예술, 특히 현대 건축물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건축이 모더니즘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통적인 건축에 대한 도전과 표현의 풍부한 전개를 추구하는 접근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자본주의, 사회적인 다원론의 성장 등은 현대건축의 비정형화<sup>18)</sup>로 이어지게 하였다.

현대 건축에서 말하는 비정형은 비형식적이고 비형태적인 것으로 기존의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양식, 형식, 형태, 유형, 상태로 규정하거나 구체화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sup>19)</sup> 그 결과로 비정형은 형태에 있어서 고착된 정형적인 형태를 벗어나서 자유곡선과 사선, 그리고 정형적인 순수기하학적인 형태 파괴를 나타낸다.<sup>20)</sup>

15) 정숙영(2007), op.cit., p. 42.

16) Ibid., p. 64.

17) Ibid., p. 3.

18) 이명식(2008), 초고층 건축 디자인의 비정형화, 건축, 52(11), p. 34.

19) 변대중(2012), 비정형 현대 건축의 역동성과 방향성 표현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3), p. 168.

20) 김철규, 천동훈(2003), 현대건축 공간구성의 비정형적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1(3), p. 89.

또한 실내 공간에서의 비정형은 결정론적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 복잡적이고 무질서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들을 비선형적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와 다양성, 의외성을 공간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sup>21)</sup> 이러한 실내에서의 비정형은 자연의 유기체적 패턴의 조직화 과정인 프랙탈(Fractal)<sup>22)</sup> 과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프랙탈적, 복잡성, 불확실성, 유동성 등으로 형성되지만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게 된다.<sup>23)</sup>

따라서 건축에서 보여지는 비정형은 표현주의적 자유 형태를 추구하는 것으로써, 형태에 따라 왜곡된 원, 중심을 알 수 없는 원호, 다양한 곡률의 곡선, 평행되지 않은 선 등이 서로 중첩되거나 우연적으로 종합되어 나타난다.<sup>24)</sup>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의 이론에 따라 바디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현대 건축물의 유기적 구조가 신체와 상통함으로 현대 건축물에 나타난 비정형적 표현 양식을 고찰하여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현대 건축에 나타나는 비정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김철규, 김정재(2003)<sup>25)</sup>는 비정형 건축형태의 표현 특성을 비형식성, 유기성, 상품성, 실험성으로 구분하였는데 비형식성은 정형성의 배격과 변용, 자

---

21) 박상준, 홍관선(2011), 비정형적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Digital 도구의 활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3), p. 189.

22) 프랙탈(Fractal) : 세부 구조를 확대해 볼수록 전체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말한다. 구불구불한 해안선에서 일부 지역을 확대하면 전체 해안선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 (2016. 4. 6. 검색)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D%94%84%EB%9E%99%ED%83%88&kind=all>

23) 박상준, 홍관선(2011), op.cit., p. 189.

24) 김철규, 김정재(2003), op.cit., p. 102.

25) 김철규, 김정재(2003), 현대건축의 비정형 건축형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4), pp. 101~108.

유곡선의 사용과 기하학의 해체와 재구축으로 설명하였고, 유기성은 주변 환경과의 동화, 규칙적 움직임의 배경, 상품성은 대중성에서의 탈피, 개별성의 강조, 자극적 형태, 외관의 구성, 실험성은 카테고리화 형태의 확장, 재료의 변용적 사용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김철규, 천동훈(2003)<sup>26)</sup>은 실내공간의 비정형적 디자인 표현 특성으로 역동성, 불확정성, 비 물질성, 경량성, 다의성, 복잡성, 비정형성인 7가지의 특성으로 나누었는데, 역동성은 직교 좌표계를 탈피한 자유곡선과 사선의 중용으로 설명하였고, 유연적 형태들의 플라주적 표현인 불확정성, 매체가 지니는 물리적 세계로부터의 탈피한 비 물질성, 경량성은 고착된 중량 매스에서 탈피하여 변화 가능한 것을 채택하며, 다의성은 하나의 형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복잡성은 단순계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것, 비정형성은 순수 기하학적 체계에서 벗어난 자유 형태의 비정형성으로 설명하였다.

이명식(2008)<sup>27)</sup>은 비정형 건축의 표현 특성으로 비표준화, 다양성, 전이성으로 분류하였다. 비표준화는 사선이나 자유곡선 등과 같이 기존의 형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특징이고, 다양성은 건축의 형태와 외피의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유인할 만한 상업적 다양성을 말한다. 전이성은 건축 재료의 변형적 사용에 따른 표현 유형으로 기존의 조형 관점에서 일탈하는 전이적인 성격이 짙은 특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박상준, 홍관선(2011)<sup>28)</sup>은 비선형적 조형 요소로 중첩, 스케일링, 접기, 비틀기, 왜곡, 파동으로 분류하였다.

변대중(2012)<sup>29)</sup>은 비정형 현대 건축의 표현 특성을 역동성, 방향성으로 분

---

26) 김철규, 천동훈(2003), 현대 건축 공간구성의 비정형적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 pp. 88-95.

27) 이명식(2008), 초고층 건축 디자인의 비정형화, 건축, 52(11), pp. 34-38.

28) 박상준, 홍관선(2011), 비정형적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Digital 도구의 활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1), pp. 187~199.


29) 변대중(2012), 비정형 현대 건축의 역동성과 방향성 표현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류하여 디자인의 세부 요소로 중첩, 스케일링의 변형, 왜곡, 반복과 리듬, 접기로서 폴딩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비정형의 조형적 표현 특성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비선형성, 역동성, 이질성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비정형의 조형적 표현 특성

| 선행연구               | 조형적 표현 특성                                      |
|--------------------|--|
| 김철규, 김정재<br>(2003) | 비형식성, 유기성,<br>상품성, 실험성                         |
| 김철규, 천동훈<br>(2003) | 역동성, 불확정성,<br>비 물질성, 경량성,<br>다의성, 복잡성,<br>비정형성 |
| 이명식<br>(2008)      | 비표준화, 다양성<br>전이성                               |
| 박상준, 홍관선<br>(2011) | 비선형성   |
| 변대중<br>(2012)      | 역동성, 방향성                                       |



| 연구자  |
|------|
| 비선형성 |
| 역동성  |
| 이질성  |

## 2. 비정형론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 1) 비선형성

바타이유의 비정형은 형태의 왜곡과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현실을 가두는 개념들의 모든 경계를 제거<sup>30)</sup>하려 한다. 이러한 비정형은 형태생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지향하고, 자유곡선의 사용과 기존 기하학의 해체에 따라, 비선형(非線型)의 개념이 디지털 패러다임과 함께 더욱 부각<sup>31)</sup>되었다.

비선형이라는 말은 최근 들어 건축이나 디자인 등의 조형 분야에서 조형 원리의 표현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sup>32)</sup>로, 어떤 변수의 작은 변화가 다른 변수에 관계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 양상을 흔히 비선형이라고 부른다.<sup>33)</sup> 즉, '선형(線型)'을 원인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비선형'은 '원인에 대한 결과를 비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 무엇'<sup>34)</sup>인 것이다. 따라서, 비선형성은 선형에 비해 예외적, 무작위적, 비전형적, 그리고 비예측적, 불규칙적, 증폭적이며, 비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직된 규범에서 보다 자유롭고 유동성 있는 변화와 예기치 못했던 것을 제공한다.<sup>35)</sup>

이러한 비선형 현상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

30) 정숙영(2007), op.cit., p. 3.

31) 박상준, 홍관선(2013), op.cit., p. 233.

32) 박은형(2013), 유기적 건축 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응용한 가방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6.

33) 정인영(2011), 디지털 건축에 나타난 유기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8.

34) 김인섭(2009), 유기적 비선형(非線型)개념을 활용한 아트퍼니처 작품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

35) 조윤희(1996), 디자인에 있어서 카오스 이론과의 연관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51.

풍화와 침식, 침하, 융기 등의 자연 변수는 예측할 수 없는 선을 지닌 협곡, 동굴, 해안선, 등고선 등 자연 속 지형 형태들에서 볼 수 있다<sup>36)</sup>(그림 1).

또한, 비선형성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에 의해 건축에서의 가능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림 2>, <그림 3>과 같이 방향성과 축선의 왜곡으로 인해 구성의 기본인 기둥, 보, 벽체, 평면의 내재된 중략적 의미와 방향성이 역설적으로 표현되고<sup>37)</sup>, 형태에 따라 왜곡된 원, 중심을 알 수 없는 원호, 다양한 곡률의 곡선, 평행되지 않은 선 등이 우연적으로 중합<sup>38)</sup>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비선형 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변형을 함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내재된 인위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건축을 비롯한 사회의 전반적인 과학 분야 등 여러 학문과 예술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39)</sup>

비선형성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의 구체적 표현 유형 중 왜곡은 예술에서 원형과 표상간의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sup>40)</sup> 즉, 규칙적인 기하학적 조화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자연계에 주어진 비례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1)</sup> 형태의 왜곡 표현은 신체의 왜곡, 사물의 분해와 해체, 시점의 복수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형태에 대한 왜곡과 과장은 기본적으로 대상의 객관적인 형태와 구조에 대한 부정과 일탈로 이루어진다.<sup>42)</sup> 즉, 전형적인 관념을 파기하고 균형과 조화에 기반을 둔 미적 조형 감각 보다는 내적 표현의지가 우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43)</sup>

---

36) 김인섭(2009), op.cit., p. 4.

37) 김용범(2000), 혼돈(CHAOS)이론을 적용한 조경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79.

38) 박상준, 홍관선(2011), op.cit., p. 189.

39) 박근형(2007), 디지털 건축에서의 프로세스 비교분석을 통한 형태변이 인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0.

40) 정규영(2015), 원형 스크린의 화면구성 유형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4.

41) 박선위(1999),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인체변형에 관한 연구, 논문집, 20, p. 100.

42) 최소영(2008), 헤어 아트에 나타난 '추(醜)'이미지 표현양상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9.

43) 박현신(2003), 20세기 후기 패션의 신체부재와 탈재현 현상,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48.

캐나다 출신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1929~)의 건축물은 독특한 구조와 왜곡된 형태로 해체주의적 자율성을 추구하며, 유기적 곡선으로 비대칭적 비선형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 4>와 같이 쓰러질 듯 기울어진 형태가 곡선과 직선의 조화로운 울동감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왜곡은 상대적 관계에 의해 전형적인 모습이 상실되어 고전적인 직교 좌표가 무너지며 머릿속에서 상상되고 감각에 의한 구성을 취하게 되어<sup>44)</sup> 정형적 형태를 깨뜨리고 탈구조적 현상인 비정형으로 변형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선형성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의 구체적 표현 유형 중 변형은 기본적으로 '객체성'과 '정체성'의 부정 혹은 그로부터의 일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조형에서의 변형은 물체의 형상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sup>45)</sup>

일본 건축가 이토토타(Toyo Ito, 1941~)의 건축물인 도쿄 오모테산도 토즈(TOD'S) 빌딩은 콘크리트 벽체를 뚫어 주변의 가로수 가지 모양을 외벽 디자인에 가져와 나뭇가지의 비선형적인 불규칙성을 외벽에 변형시켜 기하학적인 조형성을 보여준다(그림 5). 이처럼 변형은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형상이나 구조를 고의로 왜곡시키거나 과장하는 것을 말한다.<sup>46)</sup> 변형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신장(伸張), 단축(短縮), 확장(擴張), 생략(省略), 단순화(單純化) 등이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방법들이 복합되어 나타난다.<sup>47)</sup>

비선형의 조형적 표현 유형인 중첩은 사전적 의미로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sup>48)</sup>을 의미하고, 회화적으로는 콜라주(collage), 파피에 콜레(papier colle),

44) 김정재, 심우갑(2006), 해체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접속관계'의 건축적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1), p. 107.

45) 백수희(2009), 디지털 게임 아트의 특성과 표현 방법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25.

46) 안재현(2000), 인체 조형 표현의 변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2.

47) 박선위(1999), op.cit., p. 100.

48) 최희(2011), 우리말 바르게 말하기 사전, 서울: 현음사, p. 722.

그리고 앓상블라주(asssemblag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sup>49)</sup>, 현대 건축에서의 중첩은 동시성, 침투성, 다층, 시·공 불안정, 투명성, 중합 등과 종종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sup>50)</sup>

헝가리 출생의 미국 디자이너 조지 케페스(Gyorgy Kepes, 1906~2001)는 중첩을 하나의 공간형태가 다른 형태를 가리 워서 볼 수 없게 되면 뒤에 가리 워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겹쳐있는 형상을 볼 때, 맨 앞의 것은 두 개의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sup>51)</sup>고 하였다. 따라서 중첩은 형태 일부가 가려진 형태로 이론적으로는 서로 구분되고 다른 평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전체에 편입시켜 하나의 전체를 보게 된다.<sup>52)</sup> <그림 6>은 한옥에 나타난 중첩으로 창과 문의 기하학적 구성이 단순하지만 규칙적이면서 일정한 변화를 수반한 중첩으로 입체감과 깊이감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비선형성을 시각화 하여 프랙탈 이미지의 무한 복제성과 무한 증식의 현상에서 오는 자유로운 변형의 특성<sup>53)</sup>을 바탕으로 불규칙하고 무정형한 모양들과 기하학적 형태나 시각적 착시 효과를 통한 모호성을 입체적 변형과 왜곡, 중첩으로 신체의 바디아트 이미지 표현에 적용하고자 한다.

---

49) 김선경(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첩(Overlapping)효과의 미적 특성,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

50) 최경우(2007), 중첩의 개념과 형태-공간적 유형 특성을 적용한 전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5.

51) 최경희(2015), 중첩의 투명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5(3), p. 71.

52) 한유경(2012), 아르하임의 시지각 이론으로 본 아동미술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7.

53) 윤민희(2012), 프랙탈 기하학을 활용한 현대조형예술의 표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4), p. 307.



<그림 1> 해안선의 비선형

([http://afractal.com/rgboard/view.php?bbs\\_id=FractalData&doc\\_num=31](http://afractal.com/rgboard/view.php?bbs_id=FractalData&doc_num=31))  
(2016. 3. 31. 검색)



<그림 2> 「Banq」, 왜곡

(<https://kr.pinterest.com/pin/512284526344072026/>)  
(2016. 4. 3. 검색)



<그림 3> Frank O. Gehry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 왜곡  
(<http://blue0083.egloos.com/m/2057703>)  
(2016. 3. 3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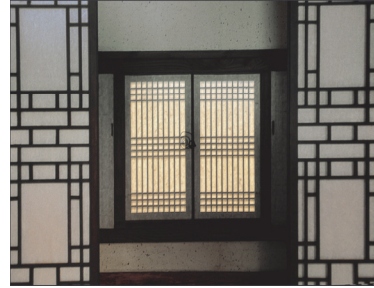


<그림 4> Frank O. Gehry

「Nationale-Nederlanden Building」, 변형  
(<http://lightnspace.tistory.com/126>)  
(2016. 4. 3. 검색)



<그림 5> Toyo Ito  
「오모테산도 토즈」, 변형  
(<http://browncafe.tistory.com/233>)  
(2016. 4. 3. 검색)



<그림 6> 한옥에 표현된 중첩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76&contents\\_id=2378&leafId=276](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76&contents_id=2378&leafId=276))  
(2016. 4. 5. 검색)

## 2) 역동성

자유형태를 추구하는 비정형은 인간의 감각과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미학적으로 정의되는 정연한 질서를 요구하지 않는다.<sup>54)</sup> 이러한 비정형의 형태가 갖는 점, 선, 면 그리고 볼륨의 형상과 질감, 연속적인 리듬감과 패턴들은 시각적으로 암시되는 힘에 의해 역동적인 변형을 지각하게 한다.<sup>55)</sup>

역동성이란 어떤 물체나 형태에 나타난 심리적인 힘, 긴장감 또는 운동감을 의미<sup>56)</sup>한다. 또한 역동성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지각적인 요소와 그것에 의해 내재된 총체적 에너지를 총칭하고, 관찰하는 대상에 의해서 지각되어지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표현된다.<sup>57)</sup>

공간에서의 역동성은 사선, 파동하는 곡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태의 역동성은 인간이 수많은 형태를 인지하면서 연계 되는 형태들의 조형 이미지로부터 비롯된다.<sup>58)</sup> 또한 비정형 속에서의 역동성은 무질서속의 질서를 의미하고 매끈한 선이 아닌 휘어지고 감기는 것이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불규칙한 형태가 일관성을 가지고 강렬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sup>59)</sup> 역동성에서 표현되는 사선은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정과 속도감, 긴장감, 변화감을 부여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내는 표현 중 하나이다.<sup>60)</sup> 또한 조형예술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동성은 일정한 반복, 변화, 율동감에 의해 동적인 리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sup>61)</sup>

54) 변대중(2012), op.cit., p. 168.

55) Ibid., p. 170.

56) 정인영(2011), op.cit., p. 49.

57) 김민선(2004), 현대공간에서 나타나는 역동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

58) 공현정(2003), 공간디자인에서의 역동적인 비정형 형태의 동기와 표현유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6~17.

59) 이은희(2016),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정형성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6.

60) 김보미(2012), op.cit., pp. 49~50.

61) 김현수(1996), 율동적 이미지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실내 도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그림 7>과 같이 모양이 변형되어 건축되어진 4차원적 타위는 정형화되고 수평적인 체계의 형태보다는 변이와 창조 그리고 해체를 통한 탈 중심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건축물에서의 역동성<sup>62)</sup>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그림8>은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로서 건축적 의미보다는 조각적 측면의 스케일이 과장된 물고기 조형물로 하늘을 향해 금방이라도 뛰어 오를 듯한 물고기의 형상이 확대되고 과장되어 움직일 듯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조형예술의 형태적 특성에 있어서의 역동성은 형태의 볼륨을 형성하는 시지각적 요소인 병치, 치환, 반복, 율동 등의 형태구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또한 크기, 재료, 색채 빛의 효과에도 영향<sup>63)</sup>을 받는다.

역동성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의 디자인 요소 중 반복은 조형의 구성 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위 형태를 2회 이상 사용하는 것<sup>64)</sup>을 말한다. 단위 형태의 반복은 좁은 의미에서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등 단위 형태의 모든 시각 요소들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단위 형태간의 색채나 질감이 같으면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sup>65)</sup> 디자인에서 같은 형태나 색 등이 화면에 균형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통일감과 안정감이 느껴지지만 이러한 반복이 지나치면 지루해지며 흥미를 잃게 된다.<sup>66)</sup> 반복되는 요소로는 색깔이나 형태, 또는 텍스처어나 방향, 각도 등이 있는데, 동일한 형식의 구성이 반복되면 동적인 감을 주어 리듬이 생기며, 시각적으로 힘의 강약효과를 낼 수 있다.<sup>67)</sup>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반복은 <그림 9>와 같이 지속적인 모양의 반복에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7.

62) 박근형(2007), 디지털 건축에서의 프로세스 비교분석을 통한 형태변이 인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2.

63) 김수진(2001), 현대건축 형태에 있어서 역동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9), p. 20.

64) 유희범(2009), 반복구성을 통한 미디어아트의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

65) 김선경(2007), op.cit., p. 13.

66) 정규영(2015), op.cit., p. 24.

67) 한석우(2001),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p. 34.

얻어지는 조형적 효과로 곡선과 면이 균형과 운동감으로 반복하면서 형태적 움직임의 연상하게 하여 역동성을 표출하였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반복적인 비정형적 형태들은 중국의 웬양에 있는 다랑논<sup>68)</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10>에서 보여지는 다랑논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정지된 사물의 안정된 상태가 방향성과 부드러운 곡선의 조형적 형태감이 울동감과 리듬감을 지각하게 한다. 이처럼 반복은 간격에 의한 연속성과 사선적인 방향감, 곡선, 대각선 구성의 불균형적 배열로 생기 있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갖게 되면서 시각적 역동성을 보여 준다.

조형적 특성의 디자인 요소로 동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울동은 그리스어 ‘rheo(흐르다)’에서 나온 말로써, 다양한 부분의 조직과 통일을 위한 미적 형식 원리의 하나로 조형예술에서 공간적 요소에 넓게 쓰이고 있다.<sup>69)</sup>

울동은 반복, 점진, 흐름과 같은 시각적 운동에 의해 같거나 약간 변화된 요소들의 반복에 의한, 통일성을 전제로 한 질서 있는 동적 변화로 점, 선, 면의 모든 기본적 요소에 적용시켜 울동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sup>70)</sup> 또한 울동은 연속된 형태의 반복, 흐름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반복이 울동을 표현하는 기본적 요소로 형태와 형태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동일한 패턴의 연속<sup>71)</sup>으로 시각적 통일성과 함께 울동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요소인 것이다.<sup>72)</sup>

일본의 예술가 카와구치 요이치로(河口洋一郎, 1952~)가 1975년에 컴퓨터로 그린 암모나이트의 형상은 연속된 형태의 반복과 흐름, 변환, 대칭의 요소들을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여 단순화시킨 이미지로 경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반복과 대칭을 이루면서 유사한 형들이 규칙적으로 연속

68) 다랑논: 비탈진 산골짜기에 층을 지어 만든 좁다란 논.

윤구병(2014), 보리국어사전, 파주: 도서출판 보리, p. 324.

69) 김연화(2011), 나선형이 지닌 조형의 구조적 법칙성과 형상특성, 한국디자인포럼, 30, p. 84.

70) 김현수(1996), op.cit., pp. 7~8.

71) 한석우(2001), op.cit., p. 34.

72) 김현수(1996), op.cit., p. 8.

되는 프랙탈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울동감이다(그림 11).

<그림 12>의 건축물은 플로리다에 있는 살바도르 달리 뮤지엄(Salvador Dali Museum)으로 실내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웨이브 형태의 계단이 유기적 곡선으로 뻗어 올라가 역동적이며 강한 운동감을 느끼게 하여 실내공간을 더욱 명쾌하고 시각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연속된 형태의 반복과 흐름, 변환, 대칭을 사용하여 조형적 특성의 디자인 요소인 반복과 울동을 적용하고, 동적 리듬감, 경쾌함을 바디아트 이미지 표현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 7> 「Dynamic Tower」,  
역동성

(<http://m.blog.daum.net/hghwang11/15980929>) (2016. 4. 13. 검색)



<그림 8> 「Fish Dance Restaurant」,  
역동성

([http://www.design.co.kr/section/news\\_print.html?info\\_id=47138&category=](http://www.design.co.kr/section/news_print.html?info_id=47138&category=))  
(2016. 4. 1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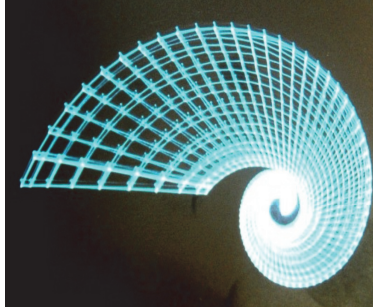
<그림 9> Zaha-hadid, 반복

(<https://kr.pinterest.com/pin/333759022365975159/>)  
(2016. 4. 15. 검색)



<그림 10> 중국 웨양 다란논,  
반복

(<http://tour.haotianjin.net/diary/detail.asp?autoid=37062>)  
(2016. 4. 16. 검색)



<그림 11> 카와구치 요이치로  
「성장모델」, 울동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kon&logNo=60142613598&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2016. 5. 2. 검색)



<그림 12> 「Salvador Dali  
Museum」, 울동

(<https://kr.pinterest.com/pin/105201341273155039/>)  
(2016. 5. 3. 검색)

### 3) 이질성

비정형에 있어서의 이질성은 재료의 변형적 사용에 따른 표현 유형으로 간주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재료의 변형이 기존의 조형 관점에서 일탈하는 전이적인 성격이 짙은 것으로 비정형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된다.<sup>73)</sup>

이질성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동질성(homogeneity)의 반의어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의 동질성을 동참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있다.<sup>74)</sup> 또한 이질성은 의외의 요소들을 통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물들을 병치시키고, 시각에 있어서 신비감을 조성시키는데 무질서 속에 새로운 이미지를 묘사하여 이전에 경험한 이미지가 이질적인 것으로 변한데서 오는 심리적 충격을 제공한다.<sup>75)</sup>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은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기이하고 부조화된 느낌을 전달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풍부한 창조성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한다.<sup>76)</sup> 또한 본질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혼합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이 미적 부적절성 등으로 인한 혼돈, 무질서를 통해 현대인의 사회적 상실과 모순<sup>77)</sup>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양한 질감의 색다른 소재를 활용하여 풍부한 표현의 효과를 제시하는 이질적 소재는 조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창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sup>78)</sup> 서로 다른 느낌의 소재를 결합하는 디자인 발상으로 하드와 소프트한 재질을 함께 사용하거나 용도가 다른 소재의 결합, 고상해 보이는 것과 저속한 것, 비싸 보이는 것과 값싸게 보이는 것,

73) 이명식(2008), op.cit., p. 35.

74) 이동균(2014), 도시 테란바그의 '이질성'이 가지는 타자성 부각을 통한 건축의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2.

75) 박윤희(2012), 데페이즈망기법을 응용한 아트 웨어 개발,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9.

76) 최소영(2008), op.cit., p. 45.

77) 박월미(2011), 현대미술과 패션에 나타난 추(醜)의 상관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75.

78) 김현진(2014),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69.

프리미티브와 하이테크의 결합 등 상반된 이미지의 결합<sup>79)</sup>이 있다.

건축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질적 결합은 건축의 외피와 내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의외적 요소의 도입, 이질적 병치, 또는 변형, 기묘한 결합으로 공간에 형태적 이질감을 주기도 한다. <그림 13>과 같이 스페인 리오하 지역의 마르케스 데 리스칼(Marques de Riscal) 호텔은 주변의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 스러운 건축물이 이질적으로 병치되어 있고, <그림 14>는 건축의 표면을 금속으로 사용해서 매끈한 표면감을 극대화하여 재료에서 보이는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15>와 같이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건축 사무소 헤르조그 앤 드피롱(Herzog & de Meuron)에서 디자인한 도미너스 와인너리(Dominus Winery)는 다양한 색의 현무암으로 벽을 만든 독창적인 건축물로 건물의 표피를 돌을 사용하여 기능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적 오브제로 사용되어 졌다.

현대에는 색채에서도 이질성이 표현되어 개성의 표현이 강해지고, 정형미를 벗어난 불균형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 졌다. 색채는 조형예술에서 형태, 재료와 함께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자체의 색상보다 색이 배치된 상태에 따라서 미적인 효과가 달라진다.<sup>80)</sup>

건축에 나타나는 색채는 인간의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디자인 작업의 성격이나 의도에 맞는 특정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고, 건축물의 성격을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sup>81)</sup>

따라서 색채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두 가지 이상의 색들이 어떻게 배색되어 있는가에 따라 아름답게도 느껴지고 그렇지

---

79) 이언주(2008), 키치(Kitsch)의 미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1.

80) 박련화(2012), 패션잡지에 표현된 판타지 메이크업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6.

81) 김혜연(2009), 현대건축 외피의 색채표현 수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7.

못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sup>82)</sup> 또한 우리의 정서 상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색채는 착용자의 기호, 개성,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를 표현할 뿐 아니라 심리적 효과, 감정효과, 시각적 효과에 의해 사람의 성격, 특성,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sup>83)</sup>

이렇듯 색채에서 보여지는 이질성은 일반적 개념에서 벗어난 배색을 과감히 사용하거나, 형태도 언밸런스한 것을 의도<sup>84)</sup>하여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부조화를 이룰 경우 불안과 어둠, 우울 등을 유발시키는 감정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sup>85)</sup>

<그림 16>은 프랭크 게리의 와이즈먼 박물관( Weisman Art Museum)으로 건축물의 외피가 주는 이질적 색채이다. 이 건축물은 은백색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마감되어 있어 일몰 무렵에는 주변의 붉게 물든 석양 색을 반사하여 주황색 계열의 색채로 나타나 시각적 변화를 주어 매우 강렬한 이미지로 시인성마저 주고 있다.<sup>86)</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외피가 가지는 다양한 소재들의 이질적 결합과 색채에 사물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다양성과 확대성으로 표현 범위를 확대하여, 신체를 이용한 바디아트의 새로운 조형양식과 시각적 이미지<sup>87)</sup>를 적용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비정형론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비선형성, 역동성, 이질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

82) 전연숙(2002), 메이크업 색채와 배색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3(1), p. 50.

83) 정진경(2006), 효과적인 뷰티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6.

84) 이연주(2008), op.cit., p. 11.

85) 박련화(2012), op.cit., p. 48.

86) 문자영, 황연숙(2012), 프랭크게리 건축의 색채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4), p. 136.

87) 이유나(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61.

<표 2> 비정형론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 조형적<br>특성 | 표현유형 | 개념             | 표현이미지   |
|-----------|------|----------------|---|
| 비선형성      | 왜곡   | 형태 파괴, 변형      |     |
|           | 변형   | 새로운 형태의 재구성    |    |
|           | 중첩   | 선과 면의 반복, 겹침   |   |
| 역동성       | 반복   | 형태와 공간의 연속적 패턴 |   |
|           | 움동   | 규칙 또는 불규칙적 웨이브 |   |
| 이질성       | 소재   | 이질적 재료의 조합     |   |
|           | 색채   | 색상의 대비, 부조화    |  |



<그림 13> Frank O. Gehry  
장소의 이질성

([http://www.kiljin.co.kr/mall/m\\_mall\\_detail.php?ps\\_goid=278](http://www.kiljin.co.kr/mall/m_mall_detail.php?ps_goid=278))  
(2016. 4. 20. 검색)



<그림 14> Frank O. Gehry  
건축물 외피 소재의 이질성1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Pmxxp&articleno=3](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Pmxxp&articleno=3))  
(2016. 4. 20. 검색)



<그림 15> Herzog & de Meuron  
건축물 외피 소재의 이질성2

(<https://openhousebcn.wordpress.com/tag/herzog-de-meuron/>)  
(2016. 4. 17. 검색)



<그림 16> Frank O. Gehry  
건축물 외피의 색채

(<http://dkbnews.donga.com/3/all/20090204/34217631/1>)  
(2016. 4. 3. 검색)

### 3. 바디아트의 이론적 고찰

#### 1) 바디아트의 개념

바디아트(BodyArt)는 원시시대의 주술적인 신앙과 본능적 욕구로부터 시작되어 이어져 온 신체예술의 한 형태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시각예술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양식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88)</sup>

바디아트는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을 사용하며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나 산물로써 인간의 신체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 분야의 하나이며 인간의 몸이 예술의 행위자인 동시에 표현의 재료로써 나타나는 예술형태<sup>89)</sup>이다. 즉, 바디아트는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이미지를 표현하는 양식으로서 예술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독창적 예술<sup>90)</sup>로, 신체를 삼차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간적인 감각과 시각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4차원의 공간표현의 조형예술인 것이다.<sup>91)</sup> 이러한 바디아트는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변형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얼굴과 신체에 물감을 칠하거나 염색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형상화<sup>92)</sup>한다.

따라서 사람의 인체를 캔버스화 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바디아트는 신체 일부 또는 몸 전체에 특정 행위나 이미지를 전달하고 극대화시

88) 문정은(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디 아트 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4(1), p. 172.

89) 한명숙(2004),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9.

90) 문정은(2003), op.cit., 4(1), p. 164.

91) 태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30.

92) 한명숙(2004), op.cit., p. 1.

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시지가 강한 주제를 종합예술로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분야인 것이다.<sup>93)</sup>

## 2) 바디아트의 표현 기법

바디아트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은 매우 다양하며 방법과 재료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현대 바디아트에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회화적 기법, 그래픽 표현 기법, 일루미네이션 표현 기법, 에어브러쉬 기법, UV 발광 기법, 오브제를 이용한 기법, 디지털 기법 등으로 분류된다.

### (1) 회화적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은 바디 페인팅의 표현 기법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인체를 캔버스 삼아 기교나 형식 등의 기법에 의존하지 않은 정서가 반영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문양이나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up>94)</sup> 이러한 회화적 기법에는 <그림 17>과 같이 정밀묘사, 관념적 묘사, 약화 등의 회화적 요소를 이용하는 회화적인 페인팅 기법과 <그림 18>과 같이 우연적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물감을 던지고 뿌리고 흘리는 방법의 액션 페인팅 기법이 있다.<sup>95)</sup> 이러한 회화적 기법은 꽃, 나무, 바다 속, 인물, 우주공간 등 대부분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어 주제에 맞게 구체화하여 표현하며 작업하는 사람의 의도나 역량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가 달라지므로 충분한 실력이 요구되는 기법이다.<sup>96)</sup>

---

93) 최희자, 김경희(2010), '브랜드' 바디페인팅의 작품 제작을 위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1(4), p. 2.

94) 김혜연(2013),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1.

95) 이유나(2011), op.cit., p. 38.

96) 박리라(2016),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3.

## (2) 그래픽 표현 기법

그래픽 표현 기법은 추상적인 대상을 형상화하는 바디아트 기법이다.<sup>97)</sup> 그래픽(Graphic)의 어원은 그리스어 그라피코스(graphikos)로 ‘쓰다’, ‘도식화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사실적이고 눈 앞에 보는 듯한 묘사를 뜻하며, 도형이나 기호를 의미하기도 한다.<sup>98)</sup> 또한 그래픽 표현 기법은 선의 나열, 흑백의 조화, 여러 가지 물건들로 찍거나 색의 배열을 규칙 또는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sup>99)</sup> 그래픽 표현 기법을 사용한 <그림 19>는 우아하고 유연한 곡선 형태의 모티브와 검정색의 만남으로 강렬하지만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한다.

## (3) 일루미네이션 표현 기법

일루미네이션 표현 기법은 바디에 직접적으로 페인팅을 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바디페인팅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한 형상을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인체에 투영시키는 기법이다.<sup>100)</sup> 이 기법으로 페인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에 투영할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 후 어두운 공간에서 촬영한 영상을 투영시키고, 벽면을 검게 하는 것이 작가가 의도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sup>101)</sup> <그림 20>과 같이 모델의 바디에 투영한 작품으로 어두운 공간 속에서 바디에 투영된 영상은 더욱 선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법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페인팅 작업과는 달리 색감과 질감을 자유자재로 변경 가능하여 아티스트의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며 인체를 또 하나의 스크린 대상으로 삼고 작업하는 일루미네이션 표현기법은

97) 김보연(2015),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따른 바디아트 작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5.

98) 최경옥(2009), op.cit., p. 43.

99)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 아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5.

100) 김세령(2011),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의 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2.

101) 이유나(2011), op.cit., p. 39.

점차 활동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에게 활용되어지고 있다.<sup>102)</sup>

#### (4) 에어브러쉬 표현 기법

에어브러쉬 표현 기법은 공업용 콤프레셔로 압축된 공기를 이용하여 물감을 일정하게 분사하여 입체감을 표현하고 에어브러쉬 건을 이용하여 섬세한 표현과 원하는 부위에 채색하는 기법을 말한다<sup>103)</sup>(그림 21). 손으로 페인팅하는 것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모양의 판을 피부에 밀착시킨 후 에어 브러쉬를 사용하면 스텐실 효과를 얻을 수 있다.<sup>104)</sup> 콤프레셔 및 에어브러쉬 건의 장비 구입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장비 사용 후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단점<sup>105)</sup>이 있으나, 정확하고 깔끔한 처리, 부드러운 음영, 투명감 있는 색조의 표현, 섬세한 선의 표현, 매끄러운 그라데이션, 명암의 대비, 작업 시간의 단축으로 손으로 하는 페인팅 기법보다 더 쉽게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sup>106)</sup>이 있다.

#### (5) UV 발광 표현 기법

UV 발광 표현 기법은 바디 페인팅 물감과 빛을 결합한 과학적 바디아트 기법<sup>107)</sup>으로 물감 자체의 효과로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일반 조명에서도 색상을 보여 주지만 블랙라이트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색상을 발광한다.<sup>108)</sup>

102) 박리라(2016), op.cit., p. 16.

103) 김보연(2015), op.cit., p. 27.

104) 최경옥(2009), op.cit., p. 45.

105)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4.

106) 최희정(2012), 오브제를 응용한 바디아트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1.

107) 김보연(2015), op.cit., p. 29.

108) 김민정(2010), 바디아트 마티에르(Matiere)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0.

이 발광 물감은 청보라빛을 띄는 UV 라이트(블랙라이트)라는 특별한 조명 기구에 비추지면 더욱 선명하고 투명한 색상을 발광하여 캄캄한 무대에서도 환상적이고 신비한 효과를 낼 수 있다.<sup>109)</sup>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 기법의 작품은 다른 바디아트보다 화려한 성질 때문에 무대 공연이나 쇼 연출에 많이 활용된다(그림 22).

#### (6) 오브제를 이용한 표현 기법

오브제를 이용한 표현 기법은 물감 외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설치 작업을 통해 미술 작품과 같이 신체에 무해한 머드팩, 석고, 종이, 깃털, 비닐, 스톤, 레이스, 금속, 직물등과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그림 23>과 같이 풍부한 표현력과 새로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질감(Texture) 표현을 오브제 표현 기법이라고 한다.<sup>110)</sup> 오브제를 이용한 기법은 재료의 제한을 없애고 일상의 사물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조형 개념을 형성하며, 다양한 소재의 확장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 (7) 디지털 표현 기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디지털 기법은 <그림 24>와 같이 신체 자체를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후 그 굴곡된 형상에 따라 그 위에 작가가 의도한 이미지를 무늬와 같은 문신 기법을 통해 신체에 그대로 새겨내는 정교한 컴퓨터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기법이다.<sup>111)</sup> 이 기법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에 따라 표현의 다양성과 시각의 가능성을 넓힘으로서 다른 예술의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112)</sup> 또한 디지털 표현 기

109) 김세령(2011). op.cit., p. 10.

110) 김보연(2015), op.cit., p. 31.

111) Ibid., p. 35.

112) 최성진(2014), 몸아트의 조형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

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아이디어 발상 및 표현, 드로잉, 3차원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CAD, CAM의 응용 등 디자인 도구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sup>113)</sup>

---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7.

113) 이민정(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31.



<그림 17> 회화적인 표현 기법

(<https://kr.pinterest.com/pin/507992032941000853/>)  
(2016. 3. 10. 검색)



<그림 18> 액션 페인팅 기법

김양은 외 3인(2009), p. 124.  
(2016. 3. 10. 검색)



<그림 19> 그래픽 표현 기법

김양은 외 3인(2009), p. 110.  
(2016. 3. 6. 검색)



<그림 20> 일루미네이션 표현 기법

(<https://kr.pinterest.com/pin/572168327635311142/>)  
(2016. 3. 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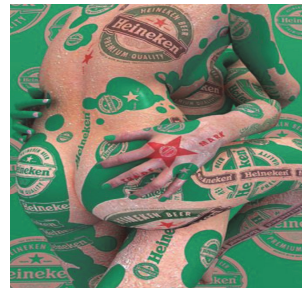
<그림 21> 에어브러쉬 표현 기법  
김양은 외 3인(2009), p. 98.  
(2016. 3. 12. 검색)



<그림 22> UV 발광 표현 기법  
이화순 외 4인(2010), p. 178.  
(2016. 3. 12. 검색)



<그림 23> 오브제를 이용한 표현 기법  
Alexander McQueen S/S 2012  
(2016. 3. 15. 검색)



<그림 24> 디지털 표현 기법  
(<https://kr.pinterest.com/pin/385972630546203973/>)  
(2016. 3. 15. 검색)

### Ⅲ. 작품 제작

#### 1. 제작 의도 및 방법

비정형은 정형의 틀에서 벗어나 그 한정을 정하지 않고, 기존의 관념을 파괴시켜 형태를 왜곡, 변형하여 모든 조형 예술 분야들을 해체시킨다.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에 따른 정형적이고, 획일화된 시각 예술은 현대인들에게 식상함을 주기에 이르렀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형태 표현을 추구하게 되었다. 현대에 나타나는 비정형적 디자인들은 비정형에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왜곡, 변형, 역동 등이 우리에게 신선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의 조형적 특성을 다루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를 바디아트와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비정형이 건축 조형에 있어서 자유곡선과 강렬한 사선의 사용, 왜곡된 원 등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여 우연적으로 종합되어 표출되고, 프랙탈 이미지에 의하여 무한 복제성과 무한 증식의 현상에서 오는 자유로운 변형의 특성에 입각한 비정형 형태의 구성 원리들이 디지털로 형태화하여 시각적 예술로 극대화 되는 것에 착안하여 바디아트 디자인을 계획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의 조형적 특성을 비선형성, 역동성, 이질성의 3가지 특성으로 분류하고 바디아트를 디자인함에 있어 조형적 표현 방법들을 왜곡, 변형, 중첩, 반복, 울동, 소재, 색채로 세분화하여 신체에 표현함으로써 비정형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작품의 디자인은 비정형의 개념과 조형적 특성에서 도출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총 6작품의 바디아트 작품을 계획하였다.

비정형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얼굴에서 허리까지를 범위로 한 상반신 바디 페인팅 2점, 전신을 범위로 한 바디 페인팅 4점으로 총 6점의 작품을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피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비정형 이론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바디아트 작품 디자인 계획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비정형론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작품 디자인 계획

| 구분<br>분류 | 비정형론의<br>표현특성 | 표현<br>유형        | 모티브   | 응용<br>이미지   | 바다아트<br>표현기법         | 일러스트  |
|----------|---------------|-----------------|---|---|----------------------|---|
| 작품 I     | 비선형성          | 왜곡<br>변형        |    |    | 페인팅기법<br>에어브러쉬<br>기법 |    |
| 작품 II    |               | 중첩              |    |    | 페인팅기법                |    |
| 작품 III   |               | 왜곡<br>변형        |   |   | 페인팅기법                |   |
| 작품 IV    | 역동성           | 반복              |  |  | 페인팅기법                |  |
| 작품 V     |               | 움동              |  |  | 페인팅기법                |  |
| 작품 VI    | 이질성           | 이질적<br>소재<br>색채 |  |  | 오브제기법<br>에어브러쉬<br>기법 |  |

## 2. 작품 제작

### 1) 작품 I : 비선형성 - 왜곡, 변형

#### (1) 작품 설명

작품 I 의 <그림 25>는 비정형 이론의 조형적 특성인 비선형성의 왜곡과 변형을 이토토요의 건축물인 도쿄 오모테산도 토즈 빌딩 주변에 있는 가로수의 나뭇가지 모양이 외벽에 디자인된 것을 모티브로 하여 상반신인 등에 표현하였다.

빌딩의 외벽에 디자인된 나뭇가지의 비선형적인 불규칙성은 전체 구조와 유사한 형태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서로 얽여 있는 형태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뭇가지의 구조를 나뭇잎의 내부구조로 왜곡, 변형하여 비선형에서 느껴지는 예외적이고 무작위적인 불규칙성과 비례하지 않는 성질을 왜곡과 변형으로 시각화 하였다.

이에 나뭇잎의 형상을 분해하고 해체시켜 과장하여 늘리고 불연속, 불규칙적인 형태를 반복하여 신체에 표현하고 나뭇가지의 형태와 컬러를 변형시켜 전형적인 관념을 파괴하였다.

나뭇잎의 뻗어가는 줄기와 세포들의 생명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그린색을 이용해 에어브러쉬와 스텐실을 사용하였고, 그 이면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양상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시각적 무게감을 주면서 음산한 분위기를 블랙과 퍼플 컬러를 사용하여 그로테스크적으로 변형, 왜곡하여 페인팅 기법과 에어브러쉬 기법을 적용하였다.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4>와 같다.

## (2) 제작 방법

작품 I의 세부적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형태감과 균형을 고려하면서 나뭇잎과 나뭇가지 도안을 디자인 한다.

② 디자인의 중심 부위인 큰 면적부터 큰 붓을 이용하여 나뭇잎의 연한색부터 시작하여 짙은 그린색의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페인팅 한다.

③ 전체적인 형태감의 윤곽을 고려하여 나뭇잎의 줄기를 표현하고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여 나뭇잎과 줄기부분의 세부 구조를 스텐실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④ 나뭇잎의 생동감 표현을 위해 화이트색으로 줄기 주변에 포인트를 준다.



⑤ 죽음의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위해 목과 어깨에서부터 블랙과 퍼플 컬러를 사용해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페인팅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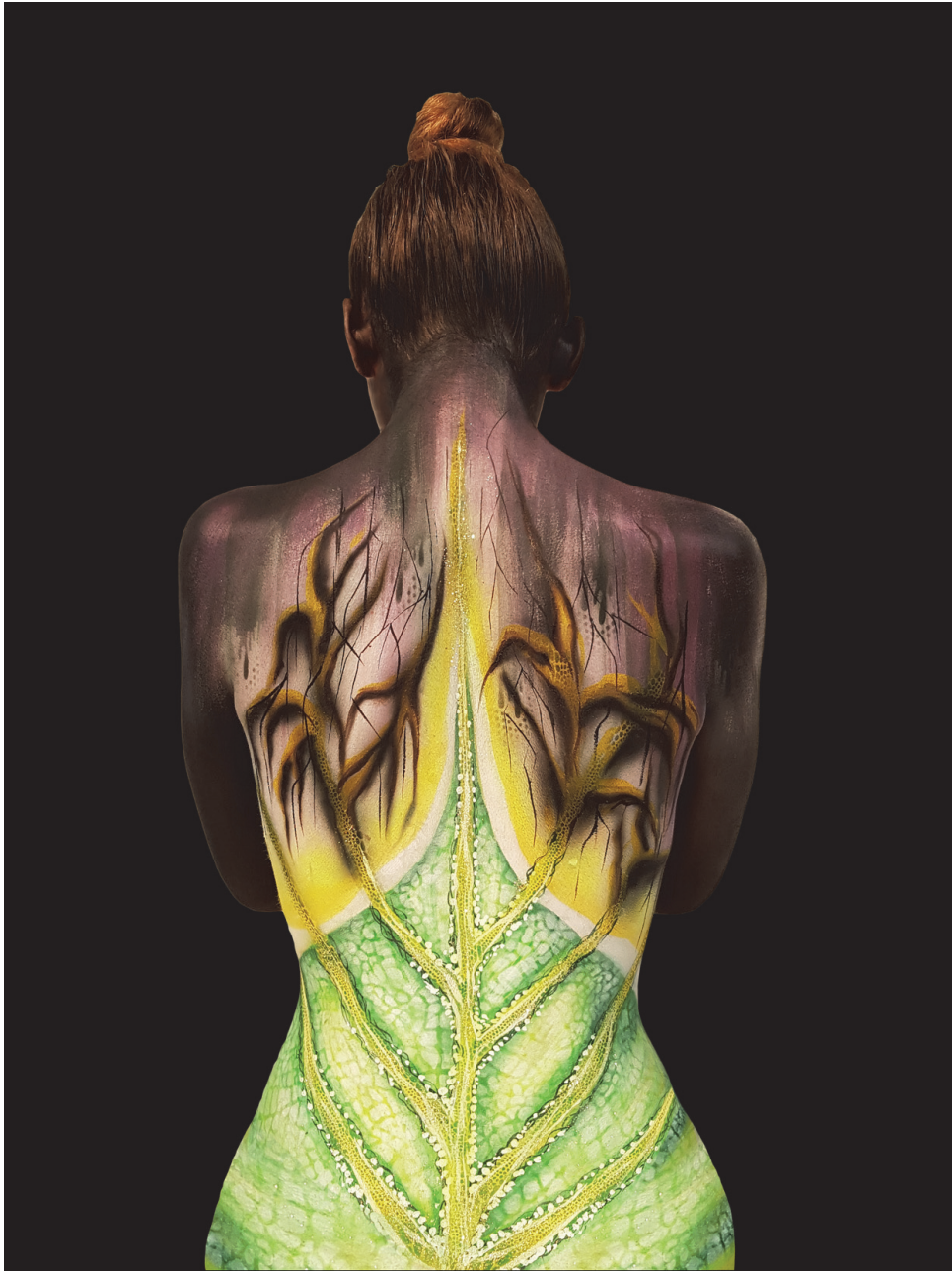
⑥ 명암의 대비와 조화를 확인하며 페인팅을 한다.

⑦ 앙상한 나뭇가지를 에어브러쉬와 세필 붓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옐로색으로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표현한다.

⑧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색감과 형태를 확인 후 나뭇잎의 생명력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글리터 파우더를 줄기에 뿌려주어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표 4> 작품 I -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구 성  | 내 용  |
| 비정형론의 표현특성   | 비선형성 - 왜곡, 변형  |
| 모티브  | 오모테산도 토즈 빌딩(벽의 나무)   |
| 재료   | 수성물감, 에어브러쉬건, 콤프레셔, 스텐실,<br>클리터 파우더  |
| 컬러   |  |
| 표현 기법  | 페인팅 기법, 에어브러쉬 기법   |



<그림 25> 작품 I

## 2) 작품 II : 비선형성 - 중첩

### (1) 작품 설명

작품 II의 <그림 26>, <그림 27>은 비정형 이론의 조형적 특성인 비선형성의 중첩을 표현한 작품으로 얼굴에서 허리까지를 범위로 한 상반신에 바디 페인팅을 하였다.

작품 II는 한옥의 창과 창문에 있는 순수기하학적 문양들을 모티브로 하여 이를 로마자와 상형문자에서 오는 기하학 문양으로 응용하였으며, 이것을 서로 중첩시켜 거둬 포개어지고 겹쳐지도록 표현하였고, 현대 건축에서 보여지는 중첩으로 동시성, 침투성, 시·공간의 불안정성 등이 서로 맞물려 표현되도록 의도하였다.

중첩은 형태의 일부가 가려져 서로 구분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각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상상하여 전체를 볼 수 있게 한다. 전체적으로 무질서 하게 보이는 비선형적 구성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였고, 스케일의 변화에서 오는 확장감을 시각화하였다.

작품 II는 로마자를 서로 연속적으로 겹치거나 포개서 선과 면을 반복하고 중첩시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얼굴과 상반신에 자유롭게 붓을 터치하면서 거친 역동성과 공간감과 깊이감을 주어 신체의 곡선을 따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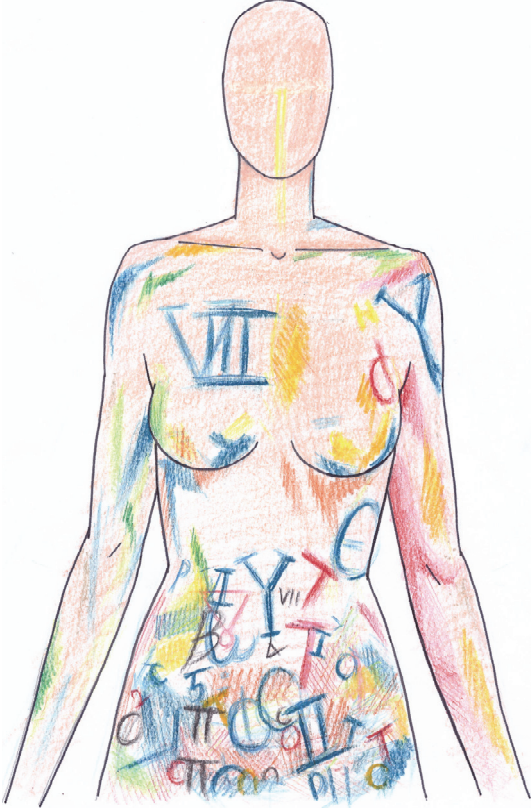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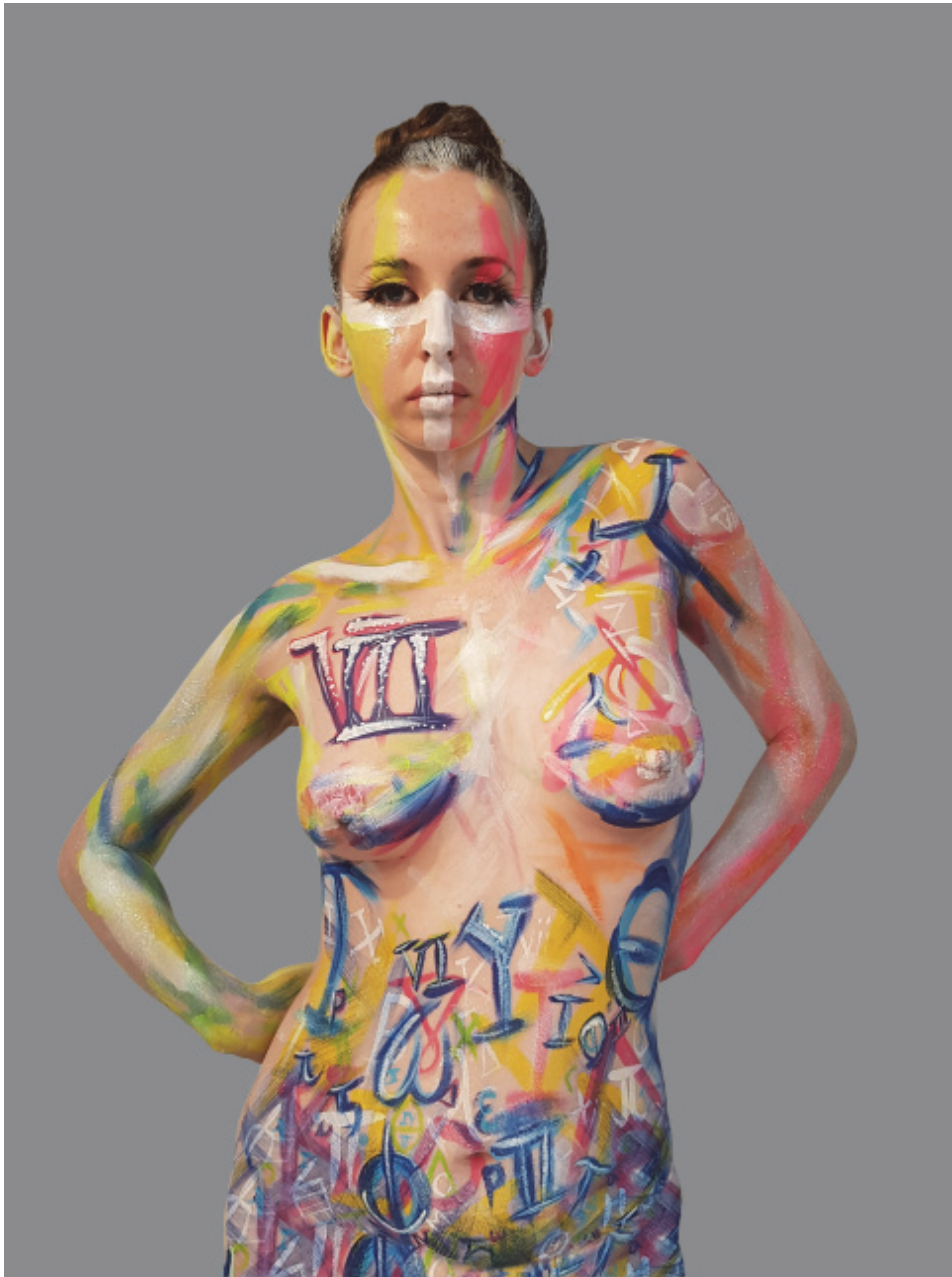
## (2) 제작 방법

작품 II의 세부적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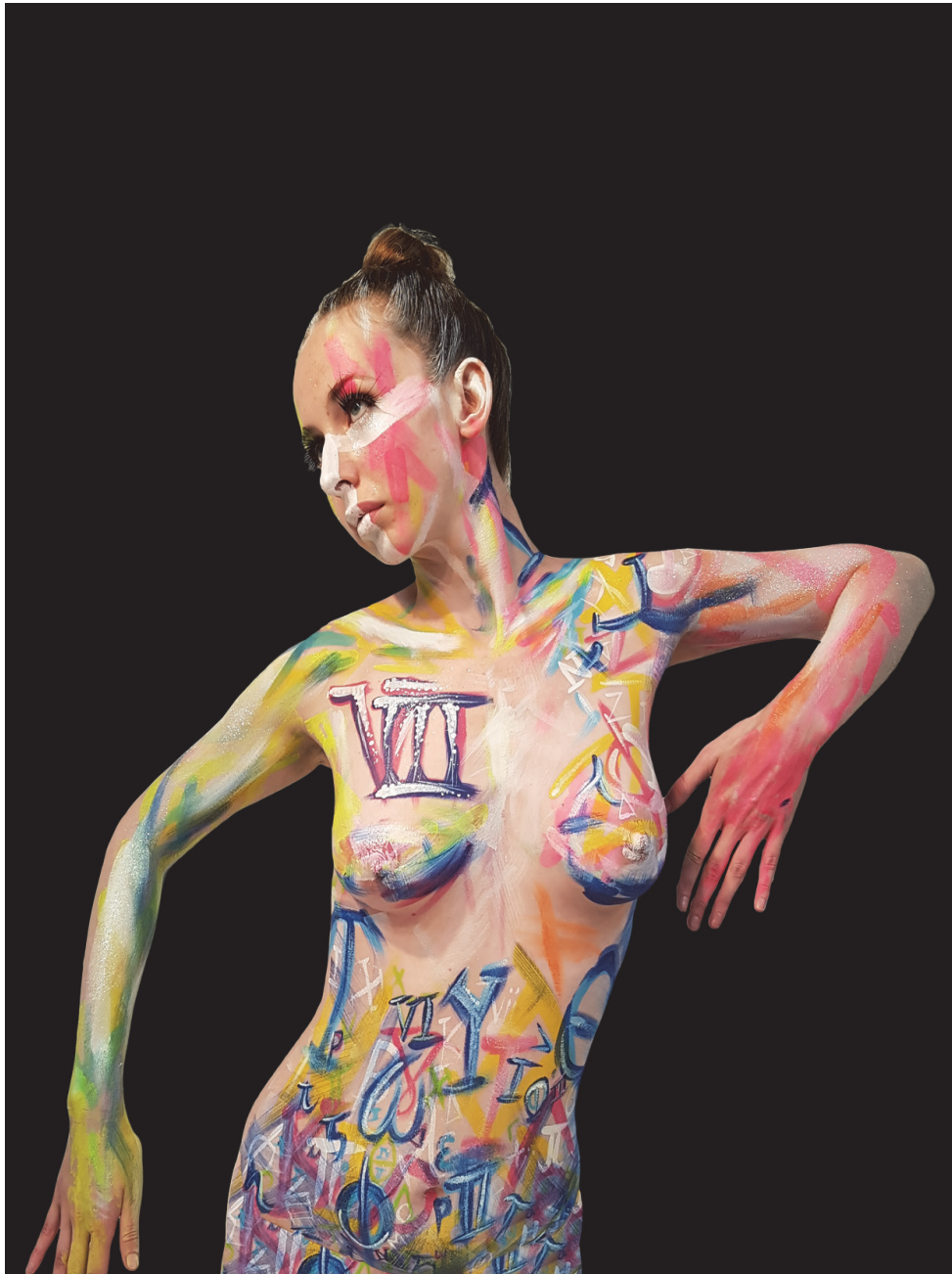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형태감과 균형을 고려하여 로마자와 상형문자 도안을 디자인 한다.
- ② 디자인의 중심부위인 큰 면적부터 큰 붓을 이용하여 화이트, 퍼플, 블루, 핑크, 옐로색의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로마자를 페인팅 한다.
- ③ 전체적인 형태감의 윤곽을 고려하면서 작은 붓을 이용하여 공간 사이사이에 로마자와 상형문자들을 겹치거나 포개서 그려 넣는다.
- ④ 양쪽 팔과 얼굴, 몸 전체에 그린, 핑크, 화이트, 옐로색을 사용해서 거칠게 붓을 터치하여 페인팅 한다.
- ⑤ 전체적인 대비와 조화를 확인하여 중첩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 ⑥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눈 밑부분과 양쪽 팔에 글리터 파우더를 발라 입체감과 화사함을 더해주며 마무리한다.

<표 5> 작품 II -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구 성   | 내 용  |
| 비정형론의 표현특성  | 비선형성 - 중첩  |
| 모티브   | 한옥의 창과 창문(기하학무늬)   |
| 재료  | 수성물감, 글리터파우더, 인조속눈썹  |
| 컬러  |  |
| 표현 기법   | 페인팅 기법   |



<그림 26> 작품 II



<그림 27> 작품 II- 1

### 3) 작품 Ⅲ : 비선형성 - 왜곡, 변형

#### (1) 작품 설명

작품 Ⅲ의 <그림 28>, <그림 29>는 비정형 이론의 조형적 특성인 비선형성의 왜곡, 변형을 표현한 작품으로 전신을 범위로 하여 바디 페인팅을 하였다.

작품 Ⅲ은 미국 보스턴에 'Banq' 라는 레스토랑의 실내 디자인의 비선형적 유기적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옵아트에서 보이는 시각적 착시효과를 응용하여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Banq 레스토랑의 실내 디자인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곡선이 불규칙으로 반복되지만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고 비선형적 연결이 변화되고 중첩되는 것을 신체에 왜곡, 변형하여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적 표현을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 바자렐리의 옵아트 작품인 '얼룩말'을 응용하여 착시적 효과를 유도하였다.

또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해 공간에 빠짐없이 동일한 모양의 선과 면을 반복하여 한쪽 부위는 블랙을 강조한 면이, 다른 한쪽은 옵아트의 시각적 착시효과를 주어 선의 반복과 스케일의 변형으로 비선형성이 표현되도록 페인팅 하였다.

색조는 블랙과 화이트만을 사용해서 서로 극과 극의 상반된 이미지가 조화로우면서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Ⅲ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6>과 같다.

## (2) 제작 방법

작품 Ⅲ의 세부적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등고선의 패턴을 디자인 한다.
- ② 블랙으로 페인팅 할 부분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화이트 수성물감으로 전체 페인팅 한다.
- ③ 남겨진 부분을 블랙 수성물감으로 페인팅 한다.
- ④ 화이트로 페인팅 되어 있는 부분에 세필 붓으로 굵기를 조절해 가며 블랙으로 등고선의 패턴을 그려준다.
- ⑤ 전체적인 대비와 조화를 확인하여 유편아트적인 착시효과를 고려해 가며 패턴을 그려준다.
- ⑥ 인조 속눈썹을 위 아래로 붙이고 마무리한다.

<표 6> 작품 III -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구 성  | 내 용  |
| 비정형론의 표현특성   | 비선형성 - 왜곡, 변형  |
| 모티브  | Banq 레스토랑  |
| 재료   | 수성물감, 파운데이션, 인조속눈썹   |
| 컬러   |  |
| 표현 기법  | 페인팅 기법   |



<그림 28> 작품 III



<그림 29> 작품 III - 1

#### 4) 작품 IV : 역동성 - 반복

##### (1) 작품 설명

작품 IV의 <그림 30>, <그림, 31>은 비정형 이론의 조형적 특성인 역동성의 반복을 표현한 작품으로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을 모티브로 하여 <표 7>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작품 IV는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속적인 반복에서 얻어지는 조형적 효과로 곡선과 면이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신체에 표현하여 율동과 리듬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동일한 형태나 색, 질감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복은 시각적으로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지만 반면에 단조로울 수 있다.

따라서 작품 IV는 단조롭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동적인 리듬감을 주어 매끈한 선이 아닌 파동하는 곡선, 휘어지고 감기는 듯한 곡선들이 불규칙하게 반복하여 시각적으로 힘의 강약을 주면서 역동감을 표현하고자 의도하였다.

흰색이 들어간 골드와 브라운, 블랙의 색조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고 골드 색조에서 느껴지는 강렬함이 생동감을 주고, 한쪽 눈과 팔, 다리에서 흘러내리는 물감은 마치 용암이 분출하여 흘러내리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주어 역동성을 더 했다.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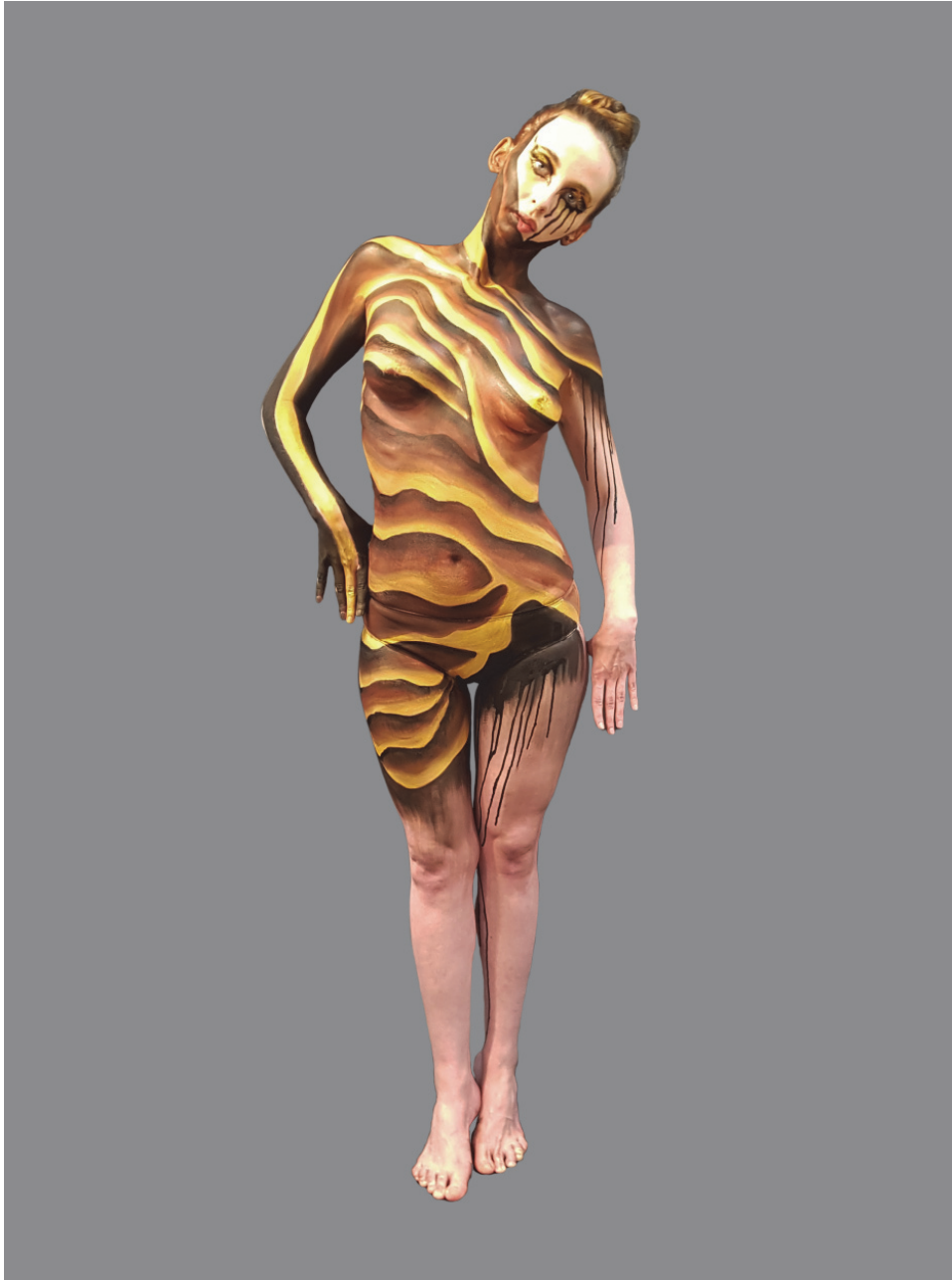
## (2) 제작 방법

작품 IV의 세부적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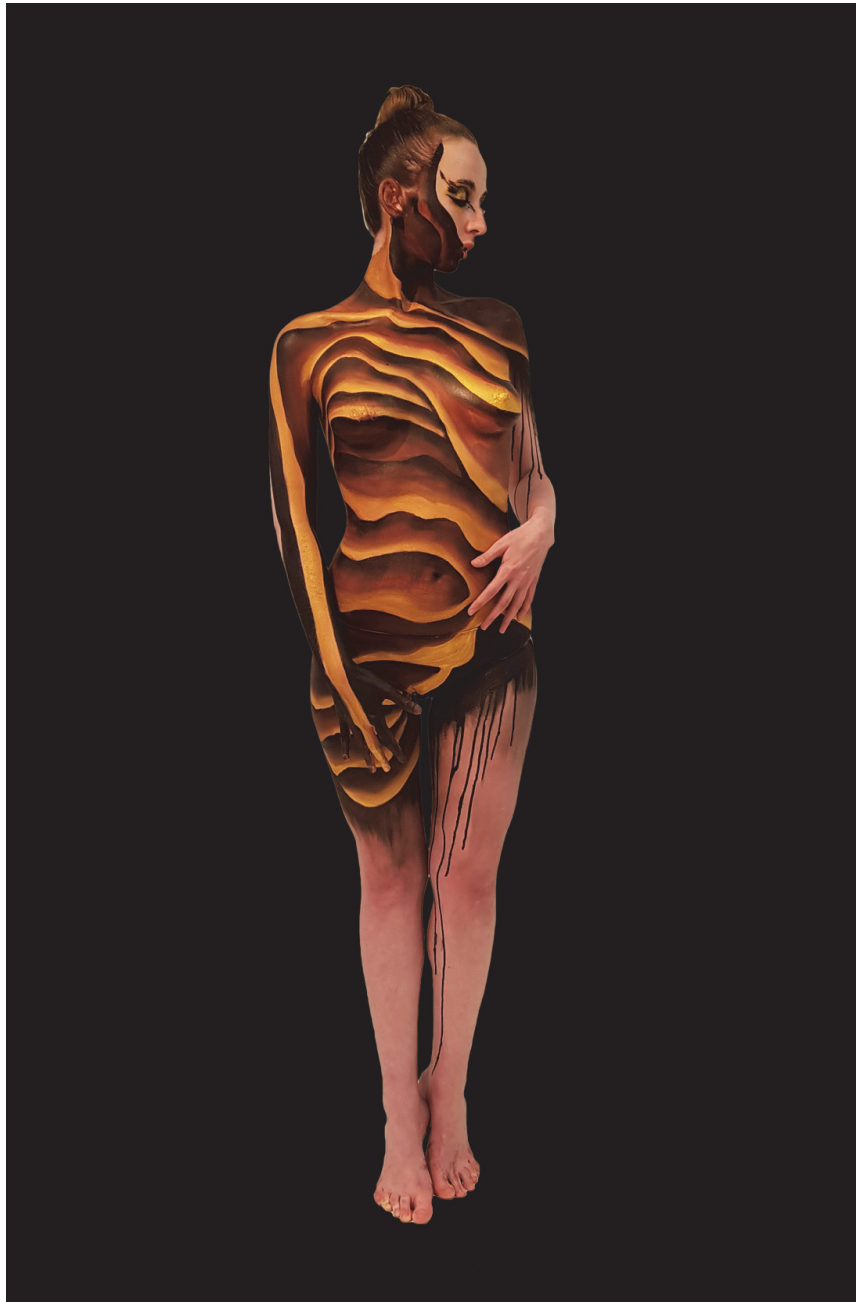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패턴을 디자인 한다.
- ② 펄골드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페인팅 한다.
- ③ 브라운 색의 수성물감을 펄골드색 위쪽으로 페인팅하면서 그라데이션 한다.
- ④ 블랙 수성물감을 브라운색 위쪽으로 페인팅하면서 브라운과 블랙이 그라데이션이 잘 되도록 한다.
- ⑤ 전체적인 대비와 조화를 확인하여 펄골드, 브라운, 블랙의 컬러가 그라데이션이 잘 되도록 표현한다.
- ⑥ 눈 밑, 팔과 다리에 브라운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흘러내리는 효과를 준다.
- ⑦ 인조속눈썹을 붙여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주고 마무리 한다.

<표 7>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구 성  | 내 용  |
| 비정형론의 표현특성   | 역동성 - 반복   |
| 모티브  |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  |
| 재료   | 수성물감, 인조속눈썹  |
| 컬러   |  |
| 표현 기법  | 페인팅 기법   |



<그림 30> 작품 IV



<그림 31> 작품 IV - 1

## 5) 작품 V : 역동성 - 울동

### (1) 작품 설명

작품 V의 <그림 32>, <그림 33>은 비정형 이론의 조형적 특성인 역동성의 울동을 표현한 작품으로 전신을 범위로 하여 바디 페인팅을 하였다.

작품 V는 플로리다에 있는 건축물인 살바도르 달리 뮤지엄(Salvador Dali Museum)의 실내 디자인에서 보여 지는 울동감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현대의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매우 다양한 디자인들을 창출하는데 건축물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하면서 건물 외곽이나 실내 공간의 디자인들이 매우 독특하고 창조적으로 건축되어진다. 따라서 살바도르 달리 뮤지엄의 실내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울동감을 웨이브 형태의 유기적 곡선으로 리듬감을 주어 이를 시각화 하여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속된 형태의 반복과 흐름, 변환, 대칭의 요소들을 사용하고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고 퍼플 컬러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과 화이트와 블랙컬러의 대칭이 조화를 이루어 울동감을 지각할 수 있도록 패턴을 배치하고 디자인 하였다.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8>과 같다.

## (2) 제작 방법

작품 V의 세부적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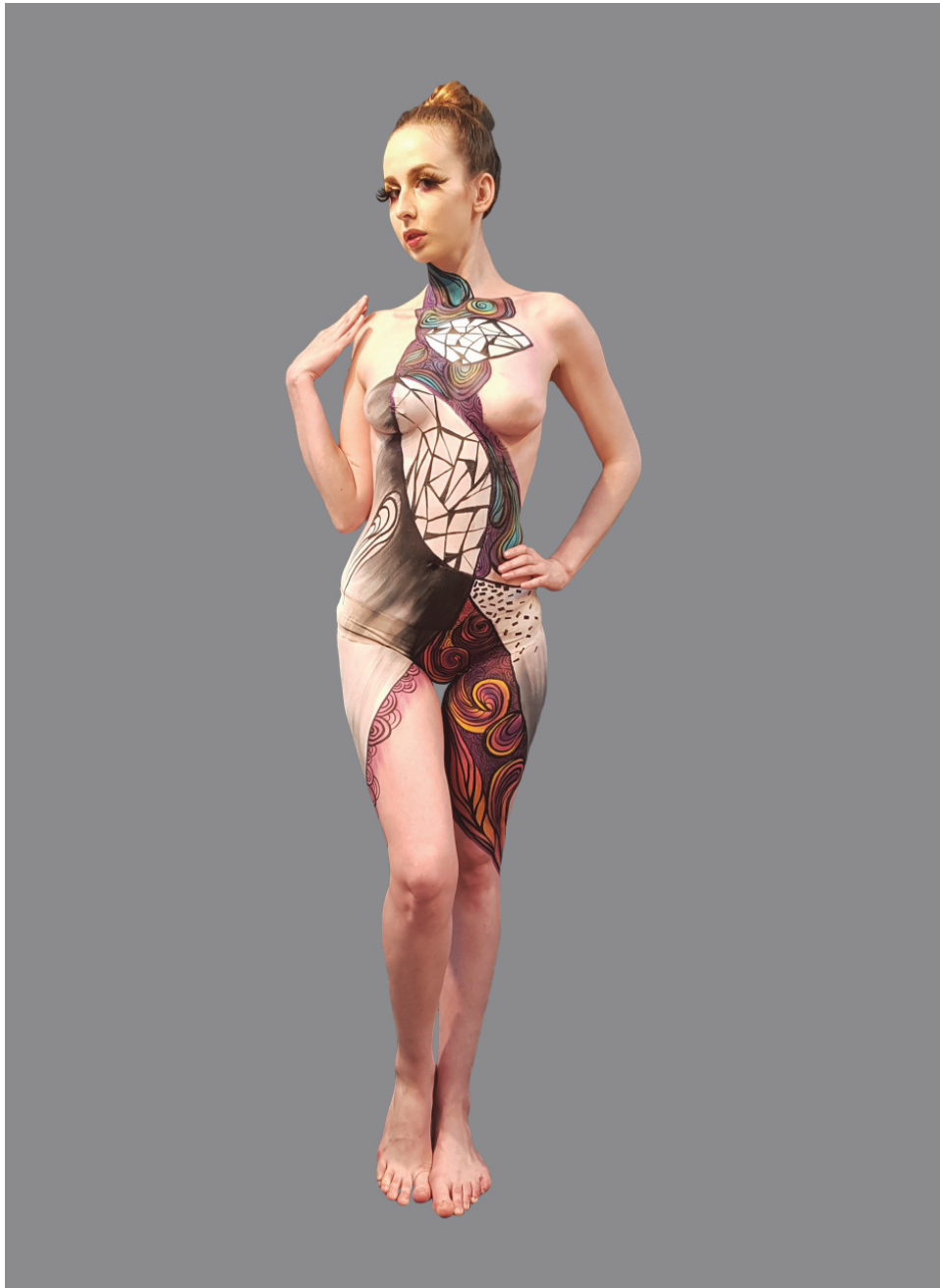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울동감이 느껴지는 패턴을 디자인 한다.
- ② 전체적인 디자인 도안이 완성되면 화이트, 블랙, 퍼플 컬러를 사용하여 페인팅 한다.
- ③ 퍼플과 민트, 옐로우 컬러가 그라데이션이 잘 되도록 페인팅 한다.
- ④ 세필붓을 사용하여 울동감이 느껴지도록 패턴을 그려준다.
- ⑤ 전체적인 대비와 조화를 확인해 가며 패턴을 그려준다.
- ⑥ 옐로우컬러 아이새도우로 아이메이크업을 하고 인조 속눈썹을 붙여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 준다.
- ⑦ 립글로스를 발라 입술의 혈색을 주고 마무리한다.

<표 8> 작품 V -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구 성  | 내 용  |
| 비정형론의 표현특성   | 역동성 - 울동   |
| 모티브  | 살바도르 달리 뮤지엄  |
| 재료   | 수성물감, 아이새도우, 립글로스, 인조속눈썹   |
| 컬러   |  |
| 표현 기법  | 페인팅 기법   |



<그림 32> 작품 V



<그림 33> 작품 V-1

## 6) 작품 VI : 이질성 - 이질적 소재, 색채

### (1) 작품 설명

작품 VI의 <그림 34>, <그림 35>는 비정형 이론의 조형적 특성인 이질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전신을 범위로 하여 에어브러쉬 기법을 사용하여 바디 페인팅을 하였다.

작품 VI은 현대 건축의 흐름이 디지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축 형태를 보이며, 건축물의 외피가 가지는 다양한 재료에 착안하여 이를 모티브로 바디 작품을 제작하였다.

헤르조그 앤 드피롱에서 디자인한 도미너스 와이너리는 다양한 색의 현무암으로 벽을 만든 건축물로서 벽의 돌망태가 오브제로 표현된 것을 신체에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이질적으로 결합하고 색채와 함께 이질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작품 VI는 건축물에서 보여 지는 돌의 이미지를 우드락 볼을 사용하여 신체에 부착하고 우드락 볼의 다양한 크기로 질감의 강약을 표현하였으며, 우드락 볼 사이사이를 라텍스 파우더로 메꾸어 신체의 이질감을 더욱 극대화 하였다.

퍼플, 마젠타, 핑크, 형광 옐로우의 컬러를 에어브러쉬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여 과도한 색채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을 몽환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시각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바디아트 디자인을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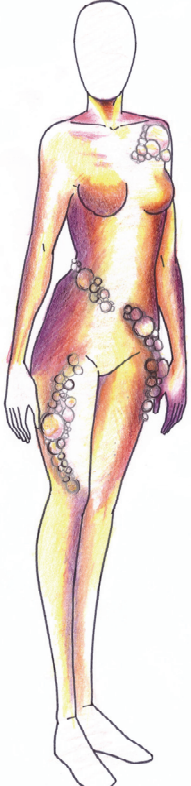
작품 V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9>와 같다.

## (2) 제작 방법

작품 V의 세부적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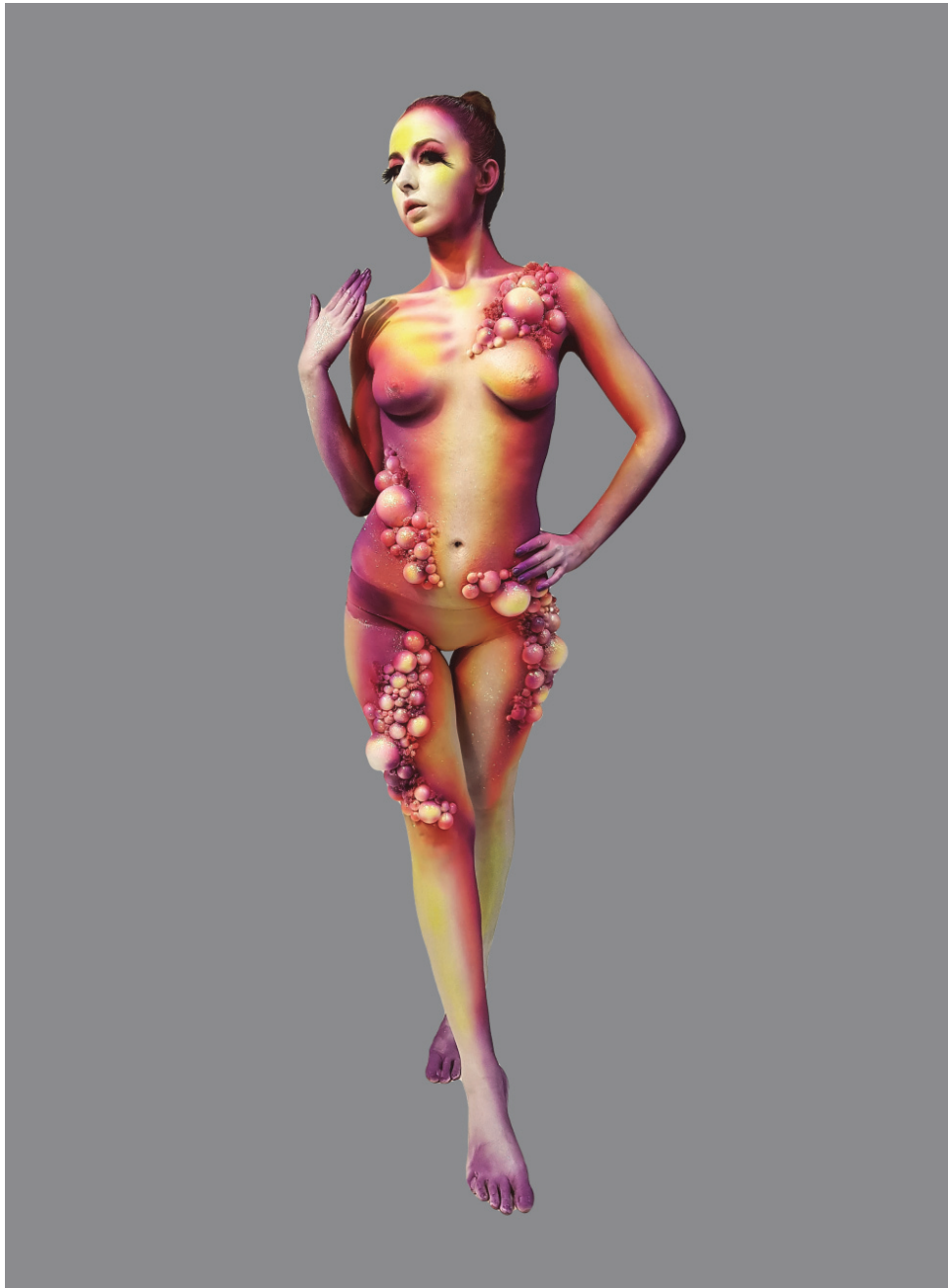
- ①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우드락 볼과 라텍스 파우더를 어깨, 옆구리, 허벅지에 부착한다.
- ② 우드락 볼은 크기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균형감 있게 부착한다.
- ③ 얼굴과 몸 전체에 화이트 수성물감을 페인팅 한다.
- ④ 얼굴과 몸 전체에 퍼플, 마젠타, 핑크, 형광 옐로우색을 에어브러쉬 기법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한다.
- ⑤ 에어브러쉬로 핑크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여 깊은 눈매를 표현한다.
- ⑥ 인조 속눈썹을 붙여 또렷한 눈매를 만들고 몸 전체에 글리터 파우더를 뿌리고 마무리한다.

<표 9> 작품 VI - 디자인 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  |
|--|--|
|  |  |
| 구 성  | 내 용  |
| 비정형론의 표현특성   | 이질성 - 이질적 소재, 색채   |
| 모티브  | 건축물 표피   |
| 재료   | 수성물감, 에어브러쉬건, 콤프레셔, 인조속눈썹, 우드락볼, 라텍스파우더, 글리터파우더                                      |
| 컬러   |  |
| 표현 기법  | 오브제 기법, 페인팅 기법   |



<그림 34> 작품 VI



<그림 35> 작품 VI - 1

## IV.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모더니즘적 관념론에서 이탈하고 다채롭고 의외성이 짙은 새로운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비정형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디아트에 나타난 시각적 이미지 표현을 분석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비정형 형태의 구성원리가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에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비정형과 바디아트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 국내외의 전문 서적과 학위 논문, 학술지,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비정형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여 바디아트의 이미지로 디자인을 계획하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형은 일정한 형태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사고 질서를 깨는 관념적인 개념을 통틀어 말하며, 바타이유에 따르면 비정형이 형태의 왜곡과 불균형의 상태를 가리키고 모든 범주를 해체시켜 모호하고도 실체가 없는 개념으로써, 특성을 비선형, 역동성, 이질성의 요인으로 범주화 하여 구분할 수 있었으며 바디아트 작품 제작의 특성으로 삼았다.

비선형성은 어떤 변수의 작은 변화가 다른 변수에 관계 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바디아트 표현 방법으로 왜곡, 변형, 중첩을 지닌 형태를 제시 하였다.

역동성은 어떤 물체나 형태에 나타난 심리적인 힘, 긴장감 또는 운동감으로 시지각적 요소와 그것에 의해 내재된 총체적 에너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바디아트의 표현 방법으로 반복, 울동에 근거하여 관련성을 도출하였다.

이질성은 의외의 요소들을 통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물들을 병치시키고, 시각에 있어서 신비감을 조성시켜 무질서 속에 새로운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

을 의미하며 바디아트의 표현 방법으로 이질적인 소재, 색채의 디자인들로 바디아트를 제시 하였다.

둘째, 바디아트의 표현 유형으로 왜곡, 변형, 중첩, 반복, 울동, 소재, 색채로 구분하고 바디아트의 이미지 표현 기법은 방법과 재료의 표현 기법이 매우 다양하나 페인팅 기법, 에어 브러쉬 기법, 오브제 기법으로 하여 상반신 바디 페인팅 2점, 전신 바디 페인팅 4점, 총 6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셋째, 비정형의 조형적 특성을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I은 이토토타의 건축물인 도쿄 오모테산도 토즈 빌딩 주변에 있는 가로수의 나뭇가지 모양이 외벽에 디자인된 것을 모티브로 하여 비선형성에서 느껴지는 왜곡과 변형을 시각화하여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 하였다.

작품 II는 한옥의 창과 창문에 있는 순수기하학적 문양들을 모티브로 하여 이를 로마자와 상형문자에서 오는 기하학 문양으로 응용하였으며 이를 서로 중첩시켜 거듭 포개어지고 겹쳐지도록 하여 작품을 제작 하였다.

작품 III은 미국 보스턴에 'Banq' 라는 레스토랑의 실내 디자인의 비선형적 유기적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곡선이 불규칙하게 반복되지만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어 가는 효과를 부각시켜 시각적 착시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작품 IV는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을 모티브로 하여 반복적인 울동감과 리듬감을 형성하고 동일한 형태나 색, 질감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매끈한 선이 아닌 파동하는 곡선, 휘어지고 감기는 듯한 곡선을 반복하여 역동감을 강조하여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V는 플로리다에 있는 건축물인 살바도르 달리 뮤지엄(Salvador Dali Museum)의 실내 디자인에서 보여 지는 울동감을 모티브로 하여 연속된 형태의 반복과 흐름, 변환, 대칭의 요소들을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쾌함을 주어 율동감이 부각되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VI은 현대 건축물의 외피에서 오는 다양한 이질적 소재를 모티브로 하여 신체에 이질적인 소재를 결합하고 과도한 색채로 인하여 이질감을 극대화시켜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비정형의 특성이 바디아트에 적용될 때 디자인적 형태와 요소들이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인 재현까지 가능한 디자인으로 창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을 건축 분야에서 고찰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특성과 분석을 통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 아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공현정(2003), 공간디자인에서의 역동적인 비정형 형태의 동기와 표현유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선(2004), 현대공간에서 나타나는 역동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2010), 바디아트 마티에르(Matiere)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미(2012),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에 표현된 건축적 탈정형 공간,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연(2015),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따른 바디아트 작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경(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첩(Overlapping)효과의 미적 특성,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령(2011).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의 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진(2001), 현대건축 형태에 있어서 역동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9).
- 김양은, 이미희, 송미영, 김은주 공저(2009), 아트 메이크업, 파주: 광문각.
- 김연화(2011), 나선형이 지닌 조형의 구조적 법칙성과 형상특성, 한국디자인포럼, 30.
- 김응범(2000), 혼돈(CHAOS)이론을 적용한 조경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원방(2004), 잔혹,조르주 바타이유, 그리고 디지털 예술, 서양미술사학회, 22.
- 김원방(2005), 후기매체시대와 이종적(異種的) 예술, 한국예술학회, 1(1).
- 김인섭(2009), 유기적 비선형(非線型) 개념을 활용한 아트퍼니처 작품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채,심우갑(2006), 해체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접속관계'의 건축적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1).
- 김철규, 김정재(2003), 현대건축의 비정형 건축형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4).
- 김철규, 천동훈(2003), 현대건축 공간구성의 비정형적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3).
- 김현수(1996), 율동적 이미지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실내 도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진(2014),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연(2009), 현대건축 외피의 색채표현 수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연(2013),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자영, 황연숙(2012), 프랭크게리 건축의 색채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4).
- 문정은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디 아트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4(1).
- 박근형(2007), 디지털 건축에서의 프로세스 비교분석을 통한 형태변이 인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련화(2012), 패션잡지에 표현된 판타지 메이크업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건

- 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리라(2016),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상준, 홍관선(2011), 비정형적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Digital 도구의 활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3).
- 박상준, 홍관선(2013), 비정형 디자인의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1).
- 박선위(1999),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인체변형에 관한 연구, 논문집, 20.
- 박월미(2011), 현대미술과 패션에 나타난 추(醜)의 상관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윤희(2012), 데페이즈망기법을 응용한 아트 웨어 개발,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지(2013), 바타이유의 비정형 이론을 통해 본 에드 루샤(Ed Ruscha)의 아티스트 북(Artists' books)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형(2013), 유기적 건축 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응용한 가방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신(2003), 20세기 후기 패션의 신체부재와 탈재현 현상,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수희(2009), 디지털 게임 아트의 특성과 표현 방법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변대중(2012), 비정형 현대 건축의 역동성과 방향성 표현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3).
- 안재현(2000), 인체 조형 표현의 변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염동철,오태원(2015), 조르주 바타이의 비정형 개념을 통한 물의 디지털이미지

- 정형화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6(1).
- 유희범(2009), 반복구성을 통한 미디어아트의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민희(2012), 프랙탈 기하학을 활용한 현대조형예술의 표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4).
- 이동균(2014), 도시 테란바그의 '이질성'이 가지는 타자성 부각을 통한 건축의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식(2008), 초고층 건축 디자인의 비정형화, 건축, 52(11).
- 이민정(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연주(2008), 키치(Kitsch)의 미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나(2011), 시뮬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2016),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정형성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해미루(2013), 바디페인팅에 활용된 색채 특성,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순, 김보민, 채송화, 이윤정, 이운현(2010),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성출판사.
- 전연숙(2002), 메이크업 색채와 배색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3(1).
- 정규영(2015), 원형 스크린의 화면구성 유형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숙영(2007), 현대회화의 비정형이론과 형상전이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인영(2011), 디지털 건축에 나타난 유기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경(2006), 효과적인 뷰티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윤희(1996), 디자인에 있어서 카오스 이론과의 연관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영모, 임선희(2011), 조형 디자인의 원리를 응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지, 5(1).
- 진휘연(2010), 바타이유의 비정형(formless):비형상에 대한 현대미술이론의 고찰과 한계, 미술사학보, 34.
-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경우(2007), 중첩의 개념과 형태-공간적 유형 특성을 적용한 전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경희(2015). 중첩의 투명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5(3).
- 최성진(2014), 옵아트의 조형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소영(2008), 헤어 아트에 나타난 '추(醜)'이미지 표현양상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희자, 김경희(2010), '브랜드' 바디페인팅의 작품 제작을 위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1(4).
- 최희정(2012), 오브제를 응용한 바디아트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

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태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명숙(2004),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석우(2001),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한유경(2012), 아른하임의 시지각 이론으로 본 아동미술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La Valeur d’usage de D.A.F. de Sade” in Oeuvres Completes, vol. 2.

Yve-Alain Bois, Rosalind E. Krauss, 정연심, 김정현, 안구(2013), Formless:A  
User’s Guide,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 파주: 미진사.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B%B9%84%EC%A0%95%ED%98%95](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B%B9%84%EC%A0%95%ED%98%95) (2016. 2. 15. 검색)

[http://afractal.com/rgboard/view.php?bbs\\_id=FractalData&doc\\_num=31](http://afractal.com/rgboard/view.php?bbs_id=FractalData&doc_num=31) (2016. 3. 31. 검색)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Pmxxp&articleno=3](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Pmxxp&articleno=3) (2016. 4. 20. 검색)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kon&logNo=60142613598&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2016. 5. 2. 검색)

<http://blue0083.egloos.com/m/2057703> (2016. 3. 31. 검색)

<http://browncafe.tistory.com/233> (2016. 4. 3. 검색)

<http://dkbnews.donga.com/3/all/20090204/34217631/1> (2016. 4. 3. 검색)

<http://lightnspace.tistory.com/126> (2016. 4. 3. 검색)

<http://m.blog.daum.net/hghwang11/15980929> (2016. 4. 13. 검색)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76&contents\\_id=2378&leafId=276](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76&contents_id=2378&leafId=276) (2016. 4. 5. 검색)

<http://tour.haotianjin.net/diary/detail.asp?autoid=37062> (2016. 4. 16. 검색)

[http://www.design.co.kr/section/news\\_print.html?info\\_id=47138&category=](http://www.design.co.kr/section/news_print.html?info_id=47138&category=) (2016. 4. 13. 검색)

[http://www.kiljin.co.kr/mall/m\\_mall\\_detail.php?ps\\_goid=278](http://www.kiljin.co.kr/mall/m_mall_detail.php?ps_goid=278) (2016. 4. 20. 검색)

<https://kr.pinterest.com/pin/105201341273155039/> (2016. 5. 3. 검색)

<https://kr.pinterest.com/pin/333759022365975159/> (2016. 4. 15. 검색)

<https://kr.pinterest.com/pin/385972630546203973/> (2016. 3. 15. 검색)

<https://kr.pinterest.com/pin/390687336405592636/> (2016. 3. 12. 검색)

<https://kr.pinterest.com/pin/507992032941000853/> (2016. 3. 10. 검색)

<https://kr.pinterest.com/pin/512284526344072026/> (2016. 4. 3. 검색)

<https://kr.pinterest.com/pin/572168327635311142/> (2016. 3. 7. 검색)

<https://openhousebcn.wordpress.com/tag/herzog-de-meuron/> (2016. 4. 17.  
검색)

Alexander McQueen S/S 2012 (2016. 3. 15. 검색)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D%94%84%EB%9E%99%ED%83%88&kind=all> (2016. 4. 6. 검색)

[http://webzine.sejongpac.or.kr/access/ecatalog\\_pt.asp?callmode=&catimage=&Dir=4&um=pt&cpage=58](http://webzine.sejongpac.or.kr/access/ecatalog_pt.asp?callmode=&catimage=&Dir=4&um=pt&cpage=58) (2016.2.26.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B%9E%AD%EC%9D%B4%EB%85%BC> (2016. 4. 16. 검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C%A4%91%EC%B2%A9](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C%A4%91%EC%B2%A9) (2016. 4. 13. 검색)

# ABSTRACT

## Research Body art representation of the informal theory

Lee, Yeoun-Hwa

Make-up · 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Fusion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ncept 'atypical' is changed into various forms and expressed in the overall fields of culture and arts as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various arts and culture field by the development of dramatic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modern society.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the body art masterpiece by analyzing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 of the atypical appeared in the architecture based on the concept of atypical that is expressed as the new aspect that escaped, is diverse and has dark unexpectedness from the existing modernism idealism and has the meaning in finding various approach methods in the body art design research.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atypical could be classified by categorizing into the element of atypical, dynamics and difference and regarded this as the characteristic of body art

masterpiece manufacture.

From thi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atypical has been segmented into distortion, deformation, overlapping, repetition, rhythm, materials and colors and with the painting method, air brush method, objet method were used in score 2 upper body painting and score 4 whole body painting, total of score 6 of body art masterpiece was manufactured.

Masterpiece I was designed by visualizing the distortion and change felt from the non-linearity with the motive of the leaf of the street tree designed at the outer wall that is surrounding the Toz building from Omotesando Tokyo which is the building of Toyo Ito.

Masterpiece II have applied the geometric pattern from the Roman alphabet and hieroglyphics with the motive of pure geometric pattern that is in the window of the Korean house and have made the masterpiece by overlapping and piling up together and overlapping again.

Masterpiece III repeats the fluid and free curves irregularly with the motive of atypical organic form of internal design of the restaurant 'Banq' which is at Boston, US as its motive but have maximized the visual illusional effect by relieving the effect of making a certain order.

Masterpiece IV have manufactured the body art masterpiece by forming repetitive rhythm and rhythmic sense and making the similar form, color, texture and etc. to be continuously connected and emphasizing the dynamic power by repeating the curve that is bent and twined and waving curve and not a smooth curve having motive the architecture of Zaha Hadid, the architect. Masterpiece V expressed to stand out the rhythmic sense by giving cheerfulness and maintaining certain rule and pattern on the

elements of flow, conversion and symmetry and repeating of continuing form with the motive of rhythmic sense seen in the internal design of Salvador Dali Museum located at Florida.

Masterpiece VI manufactured body art masterpiece by maximizing the sense of difference by excessive color and combining different materials to the body with the motive of various and difference material coming from the exterior of the modern architect.

As the above, by applying the characteristic of atypical to the body art masterpiece, possibility that could create design for the design forms and elements to reappear creatively without being tied down to regular form was possible and expect to be used in creative attempt from various directions in the future also.